

2025년 3월 5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737호

“동성애 인권 주장한 인권위, 종교교육의 자유는 침해”

동반교연, 기독교대학에 대한 최근 인권위 권고 비판

인권위, 종교과목 의무화 종교 자유 침해 판단
하지만 대학은 이수 의무 알렸고 학생이 입학
인권위 권고는 헌법상 종교 자유 위반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 기독교대학에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수강을 의무화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체 과목 개설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학 교수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인권위 권고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반교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4일 서울지역 기독교대학(이하 피진정대학)이 종교과목을 필수적으로 강제하도록 한 것을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교연은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교 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진정대학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피진정대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라는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의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또 교육부가 종립대학과의 협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반하여 종립대학의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실현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종교대학과는 달리 대학교 학생에게 대학 입학시 자율적인 대학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종립대학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은 것이다. 이에 동의한 학생들은 평가방법과는 상관없이 필수 종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며 “입학할 때와는 달리 입학 후 필수 종교과목 수강을 거부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행위이다. 또 이것에 인권위가 기입해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또 교육부가 종립대학과의 협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반교연은 “2021년 5월 24일에는 인권위가 대법원 판결(96다37268) 조차 무시

하면서 단순히 출석만을 요구하는 채플 미처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채플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기당 24번의 채플에 참석하도록 하고, 채플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 우도 많다”며 “미국의 기독교 대학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자 인권이라 주장하는 인권위는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건전한 윤리도 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결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교연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기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패륜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등 인권위가 마치 중국문화혁명시대 흥위병과 같이 날뛰고 있어 돌아갈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이데올로기적 실현이 지난 후, 국민에게 돌아갈 그 모든 폐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권을 주장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좌충우돌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부산·경남·함경북도, ‘신사 참배 거부’와 ‘3·1운동’ 중심지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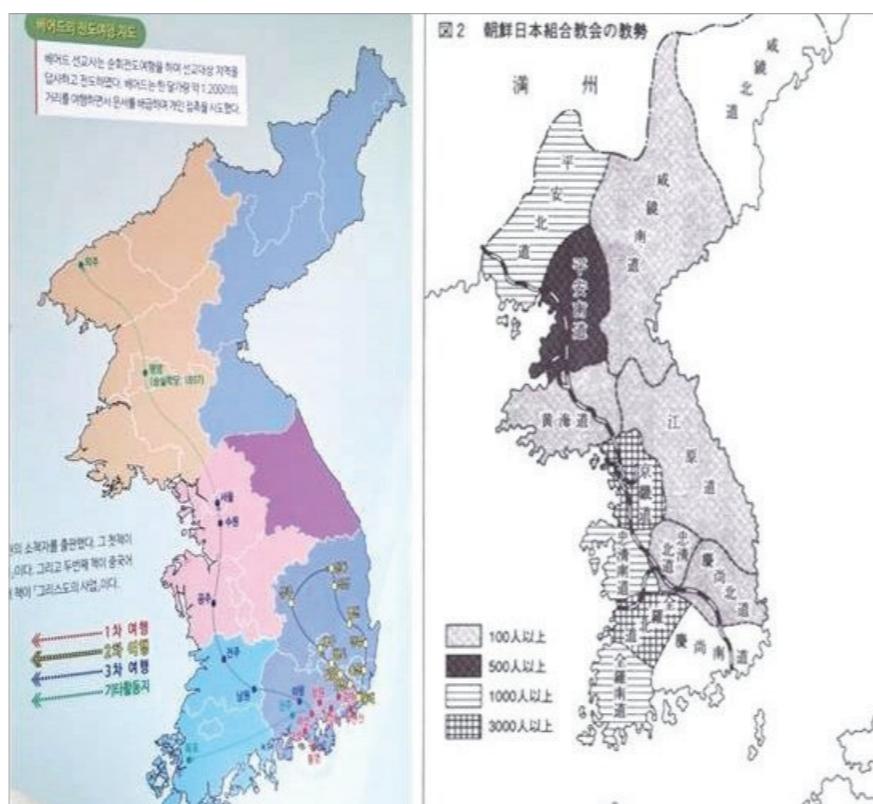
일본 기독교 포교 실패… 선교 지도 분석을 통한 역사적 조명

한일문화연구소(소장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는 최근 일본 선교 지역과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지도를 분석한 결과,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3·1운동이 가장 강하게 일어난 지역이 부산·경남·함경북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한일 강제 합병 이후 한국의 종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조선총독부는 일본 기독교를 한국에 포교하도록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약화하고 일본식 종교로 변질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일본 기독교는 하나님을 천황으로 칭하며 교회 예배에 천황 참배를 강요하자, 부산·경남·함경북도의 기성 교회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다.

당시 일본 기독교 신자의 90%는 구미 아이(組合) 교회 소속이었으며, 종회장이었던 애비나 단조(海老名 譚正)의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을 학살하고 귀와 코를 베어 전리품으로 삼은 디치바나(立花) 왜장 중 한 명이었다.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는 일본 기독교의 주요 포교 지역은 경기도와 전라북도로, 3·1운동 당시 해당 지역에서 3000명 이상의 신자가 활동했다.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와 평안북도가 뒤를 이었으며, 이후 평안남도(600명), 경상북도, 강원도 순으로 일본 기독교 세력이 확산됐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천일 세력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산·경남 지역은 초기 선교사들의 전도 방식과 신앙 교리의 영향으로



일본 구미 아이교회 선교 지역과 부산·경남 호주 선교사 선교 지역.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활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보수주의·절대주의 신앙을 강조한 호주 선교사들이 활동하며, 신앙적 이유로 일본 기독교의 포교에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문길 소장은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이후 3·1운동이 발생한 지도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도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이 존재했다”며, “이는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 교리와 선교 방식이 지역별 정신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감리교 신자들 조직 ‘예농속회’ 항일 독립투사, 최근 독립유공자 인정돼

전실회 해외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이하 진화위)가 진실 규명한 사건 20건 중 진실 규명대상자 7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예농속회(禮農屬會) 항일독립운동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 존재를 진화위에서 처음으로 발굴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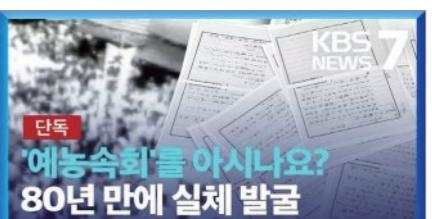
예농속회는 예산농업학교 출신의 감리교 신자들이 1939년 6월 일제의 지배를 부정하고 민족의식 고양 및 조선의 독립을 위해 조직해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모임을 개최했다. 1942년 예농속회가 일제에 의해 밭작과 김희운 등은 징역 3년~2년 형을 선고받았다.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사건 대상자 7명 중 5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진화위는 위의 사례 이외에도 항일독립운동의 행적에 밝혀진 건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2025년 31절 106주년을 기념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항일독립운동으로 진실규명된 분들이 국가로부터 마땅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일독립운동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화위는 2021년 5월 27일 조사개시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항일독립운동 분야에는 60건이 조사개시 되어 현재까지 20건이 진실규명 됐다.

노형구 기자



2022년 관련 보도 화면. ©KBS

계약금 2천만원대로 입주시시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 - EFETE 용인 둔전역 에피트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중!



용인 둔전역 에피트 PREMIUM 4

01
용인에 다시 없을
4억원대(84㎡)

02
계약금 5%
입주까지 2천만원대

03
6개월 후
전매 가능

04
전체평단가
1,417만원

예약 방문 고객 상품권 증정



분양 1688.9654

68m² A·B / 84m² A·B / 101m² 아파트 총 1,275세대

KOREA TRUST PROPERTY 시그마인더스(주) KD개발 HL 디엔아이한라 Nisos

미션스쿨 한동대 학생들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

학생들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행동”

여러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미션스쿨인 한동대학교 학생들도 이에 동참했다. 한동대 학생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포항 한동대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사망 선고’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국선언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후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22학번 임수진 학생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임수진 학생은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탄핵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자행되며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실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석 학생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하며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을 언급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의 승낙 없이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



대표적인 미션스쿨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경북 포항 한동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주최 측 제공



시국선언에 앞서 기도하는 한동대 학생들. ©주최 측 제공

민을 기만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사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국가적 위기 일린 신호탄

이어 임수진 학생은 발언에 앞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낭독하고 거대 야당의 정치적 행태와 종부·종종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했다. 임 학생은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행정부의 주요 공직이 공석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또한,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연봉과 특수활동비를 증액했다. 이는 국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드론을 이용해 우리나라 주요 군사 시설을 활영하다가 적발된 사례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간첩을 처벌하는 법안 개정을 민주당 중심의 거대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23년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군사 기밀을 넘기고 반미 시위, 탄핵 선동, 선거 개입 등의 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법 행위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한동이여 깨어나자!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계엄령은 옳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법재판소 각성해야

한동대 법학부 21학번 김태범 학생은 “한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는데,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그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투명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드러난 수준이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심판을 해야 한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또한 김 학생은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할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면서, ‘내란죄’라는 핵심 내용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정을 내린 점을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진행

된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수호 하자를 다 같이 외쳤다.

한동대 국제지역학·한국법 전공 23학번 서민혁 학생은 “현재 우리는 체제 전쟁 중이다. 반국가세력과 싸우고 있으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학생은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화 시도와 그로 인한 국내 정치적 영향을 경고하며, “중국이 한국을 정치, 문화,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를 경고해왔다”고 했다.

또한 “반국가세력은 이들을 듣는 자들을 말한다”며,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북한 정권을 더 쟁기며 대통령을 향한 탄핵 주장과 불합리한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친중행각’과 사법부와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의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행동을 단지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로 계엄을 선언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누가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2030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 지키기 위해 싸워야

서민혁 학생은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다!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주어진다! 이제 우리가 나선다!’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한동대 법학부 국제법 전공 24학번 정감송 학생은 자신의 가족 배경을 소개하며 “캄보디아에서 18년 동안 살다 온 선교사 자녀로서, 모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계몽을 받았으며, 최근 계엄령 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학생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관련해 “진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며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교회의 스텐스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교회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세상에 따라 좌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힘을 강조했다.

이어 한동대 25학번 이재용 학생은 “우리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실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춘 언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좌편향된 언론에 대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은 김성준 학생의 폐회사 순서로 모두 마무리 됐다.

장요한 기자

LX 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LX Z:IN

샬롬나비 “비상계엄은 국민호소령… 탄핵 기각돼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얼마 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87체제 현행헌법은 보강되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그동안 일인 장기 집권을 막는데 역할을 해왔으나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거나 또는 이번 22대 총선처럼 거대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를 만드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개정되어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관료나 검사를 29명이나 줄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회의 탄핵 권한의 남용도 제한시켜야 한다.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한다”며 “일인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중선구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가 줄더라고 국정안정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향한 발상이며 이 제안을 환영한다”며 “87체제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도 이번 22대 국회처럼 거대 정당의 제왕적 의회 독재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책임총리제를 허용하는 프랑스식의 이원집정제를 우리 식에 맞게 도입하고, 국회의원 하원의 임기, 특권, 수를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상원을 두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군부 계엄과는 다른 망국적 상황에 대한 국민호소령이었다”며 “대통령의 정국 시야는 다양한 정보에 의해 일반 정치인과는 다른 광범위한 영역을 본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직시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중요 이유로서 국민들 사이에 널리 유포된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고자 했다. 그동안 선관위, 대법원, 여야정치권 등 현직 국가제도권은 부정선거를 극소수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간주해왔다”며 “하지만 이미 시민단체나 의식있는 지식인들은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동일패턴으로 나오는 등 과학적 증거에 대해 공감해 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독립기구라는 배타성을 내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거부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중요 이유로서 국민들 사이에 널리 유포된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고자 했다. 그동안 선관위, 대법원, 여야정치권 등 현직 국가제도권은 부정선거를 극소수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간주해왔다”며 “하지만 이미 시민단체나 의식있는 지식인들은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동일패턴으로 나오는 등 과학적 증거에 대해 공감해 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독립기구라는 배타성을 내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거부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통령이 영어(閏閏)의 몸이 되면서까지 선거제도의 취약성을 고발한 것은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을 틀튼히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사용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비상계엄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불기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언에서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2달 이상 감옥살이를 하는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를 귀하게 보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기 위해 개인영달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에 대한 통치권 행사를 하여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고,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서 자신의 구상을 실천하기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기고 현재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사회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 국민 통합과 화목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하나님은 우리 국민들의 탄핵 천번 혼란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살아가면서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며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대한 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김진영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국가 위기상황 알린 고발문”

[인터뷰] 국민대 법대학장 이호선 교수

기독 법조인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이 최근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엄연한 통치 행위”라고 했다.

이 교수는 얼마 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평가하면서 “이 시대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는 고발문”이라며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문헌적으로 헌법상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 맞다”며 “하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간첩단 사건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계엄 요건은 폭동 등 경성 위기만을 규정했다. 하지만 누구보

다 많은 정보를 갖춘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심각한 내용을 입은 연성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경에서 등장하는 파수꾼은 가장 높이 올라가 멀리서 오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이라며 “성안 백성들은 바깥 상황을 알 수 없듯이, 윤 대통령이 파수꾼으로서 국가안보 상황의 위기를 직감해 내린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최후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던 것”이라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또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제가 전국 법대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 폭거 행위를 암법 독재라고 봤다”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



이호선 교수. ©CHTV 김상고 PD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행보는 사실상 범죄주의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때 구술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거대 야당의 행보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

을 맡은 재판 소속 변호사다. 이는 일반 재판이었다면 재판관 제척 사유”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그 재판관들은 재판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며 “조선시대도 상파제도에 따르면, 재판관이 원고피고·변호인과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판을 피하도록 했다. 재판 회피도 하지 않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다. 세계적으로 오명을 지우기 어려운 ‘K-재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한 “현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에 대한 송부촉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증인심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할 경우 심판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현재가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 관련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현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복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쟁의 심판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호선 교수는 “최상복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최상복 권한대행이 ‘인민노련’ 출신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성향을 지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 있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공직자는 임명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청이 있었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판사도 못됐을 사람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비상계엄이라는 표고적 인 현상만 보고 처음엔 탄핵 인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 비상

계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현재의 무리한 법적 절차 논란 등으로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106년 전 3.1운동은 장로교회가 주도”

한장총 3.1절 기념예배… 권순웅 대표회장 설교·임희국 교수 특강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장총 3.1절 기념예배 참석자들이 권순웅 대표회장의 선창에 따라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한장총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한장총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인 임희국 교수가 ‘3.1운동과 장로교회’란 제목으로 특강을 전했다.

권순웅 목사는 “106년 전 일어난 3.1 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으며, 전국의 장로교회 교인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다”면서 “3.1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요, 성경적 정의 개념의 실천이며, 성경적 민족주의의 발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3권 분립의 민주정치 체제를 수호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음적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희국 교수는 독립초기 안동교회 박성봉 장로와 이상재 선생,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선생 등 장로교인 3인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서울 북촌의 박성봉 장로가 정신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작성한 것을 볼 때 당연히 그 안에는 기독교적 신앙정신으로 ‘정의·평화·민족자결’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3.1운동을 장로교회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난 계기 역시 당시 미국 월슨 대통령의 특사와 상해에서 만난 장로교 지도자 30인(김규식 서병호 여운형)이 국제무대에 한국의 독립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이와 같이 당시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된 장로교회의 조직망을 활

용해 종회와 노회, 교회로 전해지면서 장로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며 “전국의 37개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대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전국의 국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했다.

또한 당시 독립운동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철저하게 비폭력주의, 평화주의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장로교 종회와 노회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기념예배에선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예장 예편 총회장)의 사회

로 공동회장 안병재 목사(예장 합동회 총회장)의 기도와 주다산교회 블레싱 소년소녀합창단의 특송, 부회장 원형득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또 권순웅 대표회장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고 증경대표회장 천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진영 기자

“유니버설디자인법, 결국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것”

기공협, 법안 철회 촉구

한국기독교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기공협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를 제안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시설물에 공

공성을 향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공협은 “오히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의 하나인 성중립화장실이다. 이는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현법 제36조 제1항은 ‘훈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의 성이나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성중립화장실 설치는 헌법

김진영 기자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UN의 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N의 권리가 강제력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법치의 근간인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한 이미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는 여성의 안전권 침해와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PRUGIO

총 3,724세대 미니 신도시 1단지 1,681세대 분양 59㎡B/84㎡A·B·C 1544-7780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자 인근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자연될 수 있으며, 시행위탁사, 시행사, 시행사와 무관합니다.

“창세기 바르게 읽기, 무신론시대 바른 신앙교육 방법”

대한기독교교육협회·토비아선교회,
2025년 사순절 목회사역 줌 세미나 개최

대한기독교교육협회이사장 신상범 목사가 토비아선교회(대표 김경진 목사)와 공동으로 최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 순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2025년 사순절 목회사역 줌(Zoom)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순절 묵상집을 목회에 활용하고자 하는 담임목사, 성경공부와 캠프, 순례를 사역에 적용하려는 교육 목회자, 그리고 다음세대와 함께 말씀과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교사들을 대상

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먼저, 강신덕 목사(토비아선교회, 살롬교회)가 ‘창세기 신앙의 중심 <죽장의 길> 사순절 묵상집과 브리끼에 동부 죽장의 길 순례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강 목사는 “무신론자들이 증가함으로 무신론자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는 무신론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며 “대응 방안에는 대외적인 변화와 바른신앙교육에 있다”고 했다.

특히 “창세기 바르게 읽기는 무신론시대 바른 신앙교육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오늘날 공격적인 무신론 시대를 넘어서 무신론이 하나님의 종교가 되어가는 시대에 신실한 창세기 읽기는 바르고 굳건한 신앙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2025년 사순절 창세기 1~24장 ‘죽장의 길’은 공격적인 무신론시대 교회의 신실한 신앙 지키기가 될 것”이라며 “창세기 죽장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한 채 악이 변성하는 세상 한 가운데 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르친다”고 했다.

고 했다.

두 번째로 ‘건강한 하나님 신앙을 배우는 <유일하신 하나님> 교재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정부선 전도사(토비아선교회, 살롬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앙의 거대한 세상 속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며 살았음을 전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거짓된 신들과 모든 것들, 하나님 외 예배와 친양의 대상이 된 것들 그리고 하

나님 대신 내삶을 차지하고 주인이 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이며 “2025년 사순절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성경의 사람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와 성경공부의 통합 <순례 캠프> 교재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조문섭 목사(토비아선교회, 서울교회)는 “왜 순례인가.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을 바탕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살아갈 나의 이야기로서 기독교 역사와 신앙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토비아 순례의 특징으로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신앙의 역사를 이룬 인물들(예수님 포함)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살피고, 그들의 길을 따라 걷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을 얻는 여행”이라며 “토비아 순례캠프 교재의 특징은 성서의 이야기를 배우고, 순례 현장을 직접 걸으며, 공동의 경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토비아 순례캠프 운영엔 세 가지로 △가족이 함께 하는 순례: 부모가 순례 가이드 △교회학교에서 진행하는 순례: 3주간의 성경공부와 1번의 순례 △연합으로 진행하는 순례: 거점을 중심으로 학생 주도형 순례를 실시 등이 있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기쁨의교회, 방학 기간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학습 지도

‘푸른초장스쿨’ 통해 자기주도학습, 큐티, 성경통독 등 진행

경기도 용인시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가 주일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4주간 푸른초장스쿨을 진행했다.

교회 측은 “방학기간 교회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훈련받기를 자원한 총 16명의 학생들은 스스로 시간관리를 하고, 매일 자기주도학습과 기도, 큐티, 성경통

독을 통해 신앙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했다.

푸른초장스쿨은 방학이 되면 자녀들의 미디어 노출과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시편 23편의 푸른초장과 같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음세대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장

을 제공하고자 작년 여름방학에 처음 진행했다고 한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푸른초장스쿨에서는 비전과 사명 특강, 플래너를 통한 시간관리 훈련, 큐티 및 성경통독 시간이 마련됐다. 교회 측은 “무엇보다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부모도 우미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아이들을 돋고, 또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초등 5학년인 한 학생은 “푸른초장스쿨이 시작되기 전 평소에 집중력도 좋지 않고 학업에 부담도 느껴 시간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 학생은 ‘플래너(계획표) 최고상’을 받았다고 한다.

교회 측은 “조별로 이뤄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가 도전받고 격려를 받으니, 방학 숙제를 2배 빨리 마치게 되었고, 평소에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도 1시간 자기주도학습을 집중해서 잘 따라갔다”며 “이후 설문을 한 결과 다음 번에 3시간 이상 자습을 원하는 학생이 50%가 넘었다. 이번에 참여했던 학생들 또한 다음 기회에 각 그룹에서 도우미로 섭기면서 다른 학생들의 자기관리를 돋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푸른초장스쿨에서는 ‘변화선포문’을 새롭게 진행했다. 변하고 싶은 말, 습관, 성품을 매일 아침과 오후 반복적으로 입술로 선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기쁨의교회가 주일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4주간 푸른초장스쿨을 진행했다. ©기쁨의교회

위함이다.

초등학교 6학년 이모 학생은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의호 담임목사는 “요즘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로 인해 방학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사역자, 교사, 부모가 함께하는 ‘3중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가치를 발견해 영성과 지성이 함께 성장하도록 돋는 것은 매우



기쁨의교회 푸른초장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경통독을 하고 있다. ©기쁨의교회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전했다.

교회 측은 “사역자와 선생님,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 도우며,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계속적으로 준비 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당신 곁에서 새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EKYUNG

여의도순복음교회, 연세대에 30억 원 기부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는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가 연세발전기금으로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연세대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학문적 도전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미래 교육·연구 환경을 혁신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달 27일 연세대 총장실 부속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신학73)와 안병광 장로회장이 참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연세대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인류애를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고, 초학제 융합 연구 및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연세발전기금은 학교가 수행하는 다



이영훈 목사(왼쪽)가 윤동섭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세대

양한 교육·연구·사회공헌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핵심 기금으로, 이번 기부금은 기독교적 가치관의 기반 위에 양자 컴퓨팅 및 AI 등 초학제적 협단융합 연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세대는 이번 기부를 통해 첨단 연구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초융합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학문 협력 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또한, 양자컴퓨팅 기반의 산업 혁신 플랫폼을 마련해, 학계와 산업체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윤동섭 총장은 “이번 기부는 연세대가 학문적 도전을 지속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와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밀거루가 될 것”이라며 “기부자의 뜻을 깊이 새겨 양자컴퓨팅·AI 등 첨단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과 기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발전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연세대가 기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교육·연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서울신대, 2025년 1학기 외래신앙상담목회자·멘토그룹 오리엔테이션 개최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가 최근 백주년기념관 412호 국제회의실에서 ‘2025-1학기 외래신앙상담 목회자 및 멘토 그룹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사는 교목처장 김성원 교수의 인도로 찬송가 497장 ‘주 넓은 사랑’을 부른 뒤, 정병수 목사의 기도와 함께 시작됐다.

황덕형 총장은 신임기준 외래신앙상담 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예비신자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의 학업생활 적응을 돋우기 위해 외래신앙상담 목회자·멘토를 모

셨다”며 “교직원과 학생들까지도 PRS 경기일에 힘쓰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성숙 교수는 2024-2학기 교목 상담 결과와 신입 외래신앙상담 목회자·멘토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한영희 교수는 상담 윤리에 대한 교육을 맡았으며, 박창균 교목은 2025-1학기 신앙동아리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김성원 교목처장의 인도로 합심 기도회가 진행되어 학교와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2024-2학기 교목 상담 결과에 따르면, 총 531명의 학생이 신앙상담을 받았고, 그 중 91%인 483명이 예비신자였으며, 나머지 9%인 48명은 신자였다. 상담을 받



서울신학대학교 2025-1학기 외래신앙상담 목회자 및 멘토그룹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기념 사진. ©서울신대

은 학생 중 46.4%는 교목에게, 53.7%는 외래신앙상담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았으며, 이는 전문적인 신앙상담과 지속적인 영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했다. 장요한 기자

김지연 대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필요성 강조

예장 통합 여전도회 '제47회 미래 지도자 세미나'에서

예장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교육문화부 주관으로 열린 '제47회 미래 지도자 세미나'가 재경중부, 호남, 영남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대구제일교회에서 570여명이 참석한 영남 지역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전도서 12장 13절)'는 말씀을 주제로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의 필요성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교육법이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성경적 성 가치관 강사로 선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성교육의 역사, 결혼·생명이기 폐 참사랑의 개념, 성교육의 흐름과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성경적인 성교육의 실상을 알리며 기독교 양육자의 효과적인 교육과 대처방법

등을 강연했다.

특히 비혼주의로 치닫고 있는 차세대에게 알려줘야 할 결혼의 의미와 기능, 책무성을 강조하며 미더어 앞에서 지켜야 할 정결함과 차세대와 진리의 말씀을 소통하고 강론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자들이 차세대를 방임하거나 그들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단 3분만이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강론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동성애, 성전환, 낙태, 음란물, 결혼, 연애, 혼외, 동거 등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온유하되 분명하게 성경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사례를 제시했다.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강연 중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주최 측 제공

또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차세대에게 회개의 길을 정확히 제시하여 회개를 받으시고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자제이나 일방적 금욕주의 교육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닌, 회개와 성화의 장이 되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

위지는 교육이 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전했다.

이날 현장에 참여했던 한 성도는 "김지연 대표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참여했다.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법들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당장 실천에 옮겨야겠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교육문화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돌아오는 3월 11일 사모다움선교회(대표 하귀선 사모) 주관으로 열리는 '제13회 사모데이 행사에서도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이 주요 강연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지연 대표의 강의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불륜, 동성애, 성전환 등 성관련 목회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를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금번 사모데이가 열리는 곳은 성북중앙교회(담임목사 김부기)로, 전국의 600여명의 사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오정호 목사, 악대본 대표회장 유임돼

제4회 정기총회 개최

17개광역사도 악법대응본부(이하 악대본)가 최근 대전광역시 소재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악대본은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막아내고 이미 제정된 악한 법률과 조례를 폐기하는데 협력하고자 17개 광역사도의 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여 2022년에 출범한 기관이다.

회의에 앞서 공동회장 박인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박명룡 목사의 기도에 이어 대표회장이며 새로남교회 당회장인 오정호 목사가 '네 후손이 복을 받게 하라(신명기 4:37~40)'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고문 심하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뒤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정관에 따라 본부장회의가 결정한 신임원을 소개했다. 이날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서기 곽금배 목사, 회계 박상준 목사 및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장로가 유임했다.

특히 금번 종회에서는 다수의 공동회장을 선임했는데 이기용 목사(신길성결교회), 신용백 목사(시냇가푸른나루교회), 임다윗 목사(충만한교회),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이성화 목사(부천 서문교회),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박인용 목사(월드와이드교회), 박명룡 목사(청주 서문교회), 이수훈 목사(동일교회), 박재신 목사(양정교회), 이상복 목사(동명교회), 지태동 목사(광진중앙교회), 박진

석 목사(기쁨의교회), 권규훈 목사(번영로교회), 방수열 목사(현대교회), 문상무 목사(고성중앙교회), 노정각 목사(온천교회), 김대훈 목사(조량교회) 등 18명의 공동회장이 악대본 사역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어진 3부 사역 나눔 시간에는 길원평 교수(한동대학교)의 '최근의 악법대응 이슈' 설명에 이어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가 '나쁜 악법의 정체와 문제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광희 사무총장은 올해 중점 사역으로 전국 지역별로 '동성애대책아카데미'를 열어 일반 성도들이 악법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17개 광역시도에서 모여온 45명의 임원들이 지역별로 임원 소개 및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며 올해도 악법과 나쁜 조례를 막는 일에 전력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악대본은 "악대본은 작년 9월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정을 추진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안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내용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며 소수자 보호 같은 독소 조항이 있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막는 일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악대본

몽지협, 몽골에 '복합 체육시설 건립' 추진한다

울란바트르시 바양주르흐구청과 계약 체결

국제 규격 어에돔 축구장 갖춘 복합 체육시설

"민관 협작 사업 첫 사례"

한국-몽골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몽골한국경제지원협의회(회장 김동근, 이하 몽지협)가 지난달 말 몽골 울란바트르시 바양주르흐구청과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약식'을 가졌다.

바양주르흐구청에서 이뤄진 계약식 체결은 자르갈 사이향 바양주르흐구청장 및 각 부서 의원들과 몽지협 김동근 회장, 최도권 법률고문(선진그룹 회장), 손혜미 이사, 유미정 이사, 아트거 프로젝트 매니저, 미가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몽골 울란바트르시 바양주르흐구 툴강 일원에 국제규격의 어에돔 축구장을 비롯해 여러 스포츠 시설과 부대시설, 캠핑장, 녹지시설 등을 조성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몽지협은 그 동안 해당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 바양주르흐구와 협의하며 구청장, 각 정부 부서별 대표, 각 동별 대표, 시의회, 구의회, 군경찰, 시민대표 등 여러 관계자들과 4차례 걸친 공청회를 거쳤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이 프로젝트는 의회 의장의 진행 아래 전원 거수 찬성으로 최종 통과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바양주르흐구 자르갈사이향 구



몽지협 김동근 회장(오른쪽)과 바양주르흐구 자르갈사이향 구청장이 계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몽지협

진하게 되었다고.

몽지협에 따르면 어에돔을 적용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의 건립은 사계절 활용가능해 각종 스포츠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설을 조성해 여가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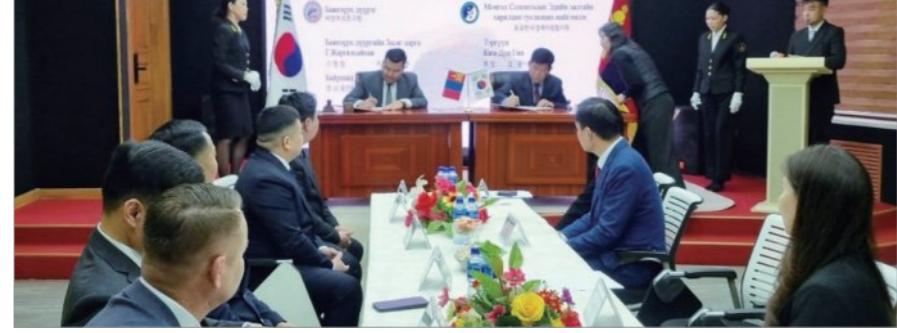
최근 몽골은 토지 배분 불가에 관한 국회법이 개정된 상황이지만, 이번 사업은 문화, 스포츠 분야 정부-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부지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몽지협은 설명했다.

몽지협은 "바양주르흐구는 2025년을 정부-민간 책임과 협력의 해로 선언한 바, 본 계약식이 민관 협작사업의 첫 사례가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며, 2012년 이후 지지부진한 한몽 관계성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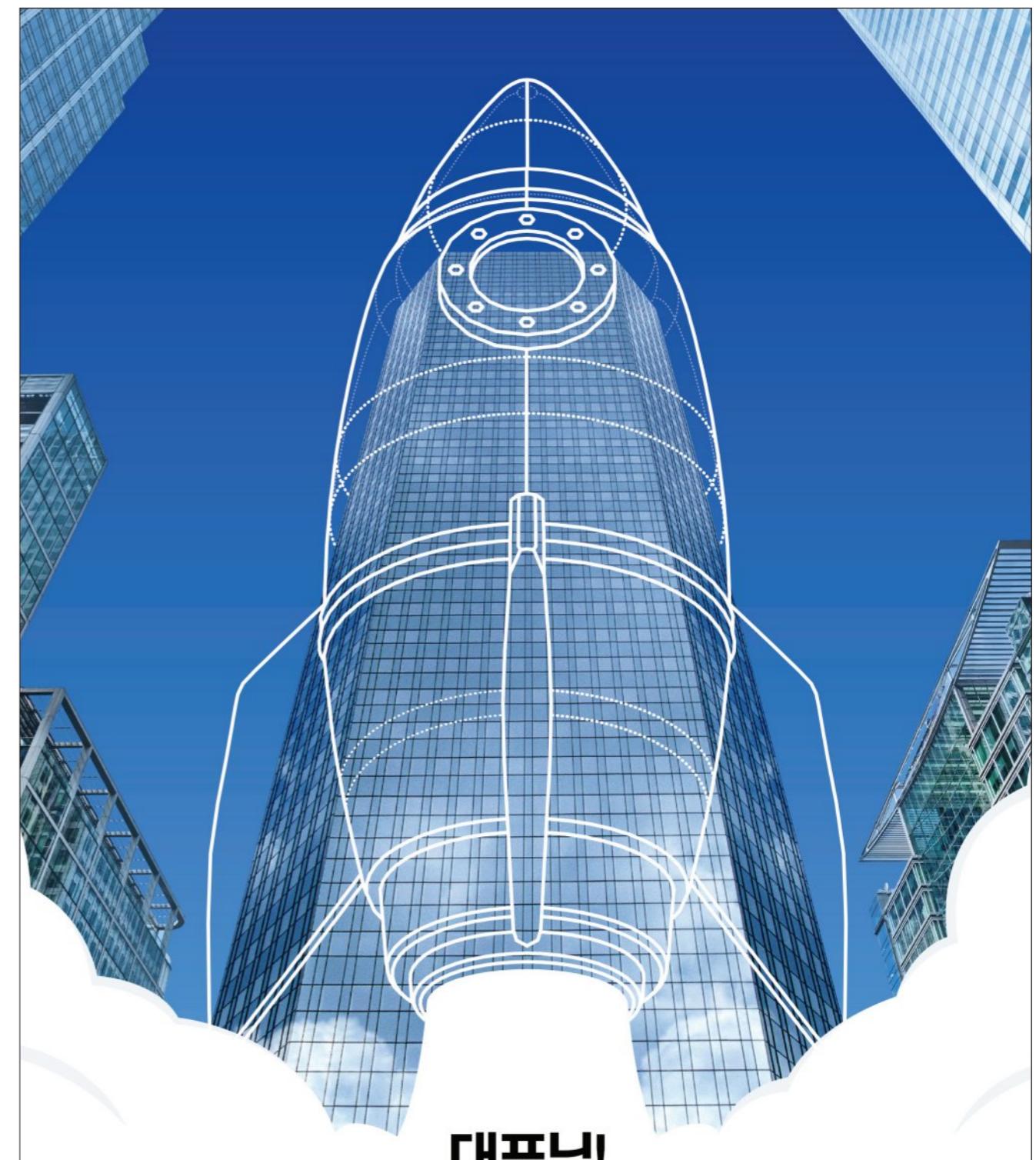
몽골 정부는 이번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약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선수 육성 및 몽골 스포츠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공청회와 계약 체결 소식은 관공서와 개인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어 몽골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몽지협은 전했다.

김진영 기자



몽지협-바양주르흐구청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몽지협



대표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달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SAMSUNG SDS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기본 중시해야”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 나성영락교회서 개최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가 미주복음방송, 미주바이블백신센터, 남가주동신교회, 나성영락교회 공동 주최로 26일 오전 10시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첫번째 강사로 나선 에스라 김 목사(미주바이블백신 센터장)는 미주 내 이단 활동에 대한 현황과 대처 방안을 나누면서, 신천지가 주로 포교를 위해서 지역 행사 주최를 통해 단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신천지는 데이트 앤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에서 친분을 쌓고 그룹 바이블스터디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미주 2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포교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예장합동 이단 상담소장인 신현숙 목사는 ‘미주 내 이단 단체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신 목사는 자신이 20년간 신천지에서 몸담고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성도들에게 나눴다.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교리와 포교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현숙 목사는 강의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으며 이만희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단의 괴수 노릇을 했던 과거를 말했다. 그러나

2006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를 탈퇴한 후, 그는 지난 18년간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구출하고 인도하는 사역을 해왔다. 그는 이 경험을 나누며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단이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고 신도들을 유혹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단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은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이다. 이단에 대해 잘 알면 주의할 수 있지만, 잘 모르면 경계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단들은 우리의 잘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대해 “신천지식 포교 방법은 매우 독특하고 효과적이다. 그들의 주요 특징으로 거짓말과 연기를 잘 한다”며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인간관계를 쌓은 뒤에 성경 공부를 제안한다. 그들은 전도 중에 거짓말을 잘하고,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들의 목적은 성경공부를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라고



신현숙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에스라 김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속으로 경계심을 가지면 미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천지가 “사기를 치는 종교 집단이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가 미주 지역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기간 동안 신천지는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 성장했고, 그 이후로 해외로 눈을 돌려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특히 2세대들이 신천지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미주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 중 90-95%가 2세대들인데, 교회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2세대들은 신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며,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이단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것이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방심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이단에 대해 잘 알고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엘에이에 세계 이단의 본부 성격의 비중을 둔 단체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만희 교주가 엘

에이에 60억을 지원해 예배당을 현금으로 매수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곳이 엘에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이단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신천지”다. 이들의 바이러스가 완성하게 유행하는 때”라며 “그때 그때 이단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도 네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이 ‘안식일’, ‘유월절’, ‘성탄절’, ‘어머니 하나님’ 등의 단어로 접근해 오면 절대 이를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대답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면 미혹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신 목사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서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며, 교회와 목회자에게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공부를 몰래 하지 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신앙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된다”며 “신앙생활을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이단의 미혹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신뢰를 가지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이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광신대 김경윤 총장 “교회가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한마음제자교회서 설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들 때 교회는 성장”

광신대학교 총장 김경윤 목사가 지난달 23일 한마음제자교회(담임 곽부한 목사)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예배소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삼아 “교회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를 섭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이 하나이며,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며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힘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라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신앙이 성장 한다”고 했다. 그는 한 성도의 간증을 소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성



광신대 김경윤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다”며,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자가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

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교를 통해 한마음제자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부한 목사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구축 교육 및 무료 웹호스팅 신청

매주 화 저녁 7시 글로벌 비전교회

교회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강좌가 개설되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글로벌 비전교회에서 진행된다.

이 강의는 교회 웹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전략을 배우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웹사이트 구축 실습 ▶효과적인 콘텐츠 업로드 ▶검색 엔진 최적화 활용 ▶교회 웹사이트 유지와 보안 ▶디지털 사역과 연계 ▶교인과의 소통을 위한 이메일 뉴스레터 등

활용 등에 대해 다룬 예정이다. 강좌는 8주간 진행되며, 등록금은 \$200이며 연장 교육이 가능하다.

이 강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직접 교회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돋보인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시는 이들에 한해서 2025년도 홈페이지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기간: 2월부터 선착순 강의 장소: 7342 Orangethorpe Ave, B-115, Buena Park, CA 90621

웹사이트: <https://globalvision.university> (강의 사이트) 김민선 기자

포모나 언약교회, 호성기 목사 초청 부흥회

3월 7일부터 9일까지

포모나 언약교회(담임 장수영 목사)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세계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를 초청해 춘계 부흥회를 연다. 7일 저녁 7시, 8일 오전 6시와 오후 5시,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호성기 목사는 필리안디옥교회를 설립, 30년 간 목회했으며, KPCA 해외한인장로회 제38대 총회

장을 역임했다.

언약교회는 2023년 12월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2024년 1월 독립교회로 출발했으며, 지난 5월 19일에 설립예배 및 장수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주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김민선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2025 언약교회 충북 우종회
세가 변해야
동물세가 변한다
2025년 3월 7일 ~ 9일
7일 저녁 7시
8일 오전 6시와 오후 5시
9일 오전 11시
장수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호성기 목사 초청 춘계 부흥회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김민선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오엠 선교선 '둘로스호프' 3월 중순 한국 최초 방문

3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울산-여수-인천-부산서 사역

오엠국제선교회(OM)의 선교선 '둘로스호프'(Doulos Hope)가 3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한국을 최초로 방문하여 사역한다.

'둘로스호프'는 국제OM이 동아시아 지역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2022년 홍콩의 카지노선을 매입하여 개조, 2023년 5월부터 운항하고 있는 선교선으로,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년간 운항하고 2009년 은퇴한 '둘로스호프'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종'을 가리며 이름을 지었으며, 길이 82m, 폭 16m, 무게 3,370톤 규모의 배에 300여 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선교사가 승선하여 사역하고 있다.

현재 대만에 머물고 있는 둘로스호프는 3월 14일 울산항에 입항하여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울산,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여수,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인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부산에서 사역하고 6월 9일 출항할 예정이다.

한국OM은 이번 둘로스호프 방한을 맞아 단기 프로그램인 STEP을 운영한다. 선교선의 한 부서



선교선 둘로스호프가 대만을 거쳐 3월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OM

에 속해 정해진 사역을 주 5일간 감당하면서, 지역 선교사역 및 타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울산항, 여수항, 인천항, 부산항과 한국 OM 본부에서 통역 봉사, 일반 봉사 등으로 셀길 둘로스호프 지원봉사도 모집 중이다.

한편, 국제OM은 1970년 로고스호를 구입하며 선교선 사역을 시작했으며, 현재 둘로스호프와 로고스호 두 척을 운영하고 있다. 1950년 조지 버

위 선교사가 미국에 OM본부를 세웠으나, 중동

국가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선교선 본부는 독일

도스바흐에 두었다. 국제OM의 선교선은 지금까지 150개국 이상, 1,600개가 넘는 항구를 방문하며 5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방문하는 항구에서 자식과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을 통해 희망을 공유해 왔다. 또 둘로스호프 크기의 4배에 달하는 로고스호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상 서점을 보유하여 5,000여 종, 50만 권 이상을 서적을 갖췄다. 두 선교선에는 60여 개국에서 온 선원단과 자원봉사자, 선교사들이 배에서 생활하며 사역 중이다. (www.om.org)

이지희 기자

성경을 선교적 시각으로 보기(20) '이방 세계에 빛이 되자'

사사기 42장 1~7절

김영희
목사/선교사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한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첫 번째 그 역할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냄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백성으로 온 세계에 나타냄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그동안 상고했다.

계속하여 이번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 번째 역할로 '이방 세계에 빛을 비침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방의 빛'이라는 용어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 6절과 이사야 49장 6절에 서만 두 번 나오는 말로, 구약에 나타난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용어이다.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을 향해 빛의 사명을 다하라는 하나님과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한 바 있다.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동일한 명령을 주셨던 것이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도 시드온이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고 예수를 가리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상교회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02장의 가사와 같이, '빛의 사자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선교의 범위를 '땅끝까지'로 삼는 것을 뜻한다. 빛은 모든 어둠의 구석구석까지도 다 비춰 듯이 복음의 빛은 세계 땅끝 어디든지 비춰야 한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43%가 복음을 모르고 사는 미전도 종족이다. 그 가운데서 거의 260만

명의 이주민들이 지금 여러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은 신약시대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도 이미 강조한 것을 본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3~4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

이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슥 4:6)고 말하였다.

셋째로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광합성 작용에 꼭 필요하다. 빛은 공기와 물과 합성돼 생체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 모든 동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에너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지상 교회에게도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갖고 가야 하며,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세계를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어 명실공히 하나님께 구하 쓰임 받게 되기를 소원한다.

[말씀묵상기도]

-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방의 빛'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미전도 종족으로서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빛의 사자'가 되는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이방의 빛'의 사명을 위해서 인간의 힘과 돈과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간구하게 하소서.

◆김영희 목사/선교사
KWMA 운영이사
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서울남교회 은퇴목사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레싱대한민국 페스티벌, 3월 7일 개최

오후 8~10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

주최하고, 한국 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복음의 전함이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아나운서 김재원, 가수 김진의, 김조한, 뮤지컬 배우 박지현, 범기, 이미엘, 배우 신현준, 윤유선, 전수진, 뮤지컬 배우 선우, 주아, 개그우먼 권진영, 김혜선, 이성미, 아연 3인 5,942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5천 개 미자립교회의 성도 총 5만 명(교회당 10명)에게 복음명함을 1명당 200매씩 무상지원하고, 1만 교회의 외벽 현수막 디자인과 파일을 무상 지원하고, 블레싱대한민국 릴레이 워십을 개최하는 사역을 펼쳤다.

블레싱USA 캠페인은 비기독교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플랫폼인 '들어볼까'를 통해 크리스천 50만 명이 '복음명함' 100장을 5천만 국민에 전하는 초교파 전도운동으로,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됐다. 대한민국 30여 개 지역, 약 6천여 개 교회와 단체가 함께했으며, 3월 4일 기준 3만 5,942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5천 개 미자립교회의 성도 총 5만 명(교회당 10명)에게 복음명함을 1명당 200매씩 무상지원하고, 1만 교회의 외벽 현수막 디자인과 파일을 무상 지원하고, 블레싱대한민국 릴레이 워십을 개최하는 사역을 펼쳤다.

한편, '들어볼까'는 예수님이 기독교를 올바르게 소개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인 2021년 12월 개설됐으며, 셀럽의 간증, 목회자의 쉬운 교리 설명 등 130여 개의 동영상 콘텐츠, 믿고 출석 할 수 있는 교회 정보 등을 소개한다. 이지희 기자



www.kps.co.kr

“미국인 62% 기독교인… 지난 20년간 종교 정체성에 변화”

퓨리서치 센터 설문조사

미국 퓨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미국에서 지배적인 신앙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실시된 3만7천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인의 62%가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7년의 78%에서 감소한 수치지만, 하락 추세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종교적 정체성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모든 주요 개신교 분파의 숫자가 감소한 반면, 가톨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현재 인구의 19%를 차지했다.

복음주의 개신교도는 26%에서 약간 감소한 23%를 차지하고 전통 개신교도는 2007년 18%에서 현재 11%를 차지했다. 흑인 개신교 교회도 약간 감소해 현재 인구의 5%를 차지했다.

동시에, 미국인의 약 30%가 자신을 무종교인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정 종교적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비종교적 가정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길을 계획하고 있다.

종교적 정체성이 세대를 거쳐 악화되면서 신앙 전통 안에서 양육된 사람들 중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전통에 헌신하는 사람은 감소했다.

한편 정치적 소속도 종교적 정체성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그 숫자는 3분의 1로 줄었다. 보수층 사이에서 감소는 훨씬 덜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공공 생활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여전히 미국 이민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기독교인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체 인구



©pixabay

와 거의 비슷하지만, 비기독교에 속하는 역학의 변화를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여

미국인의 수는 약 7%로 증가했다.

이 연구는 또한 신앙 공동체 내 젠더

에 참석하고 기도에 더 많이 참여했다. 이

는 여전히 사실이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젠더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2007년 매일 기도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을 17포인트나 초과했다. 오늘날 그 차이는 13포인트로 줄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예배 장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에서 기독교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미국 생활에서 주요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 종교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태도가 변화하면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새로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경 기자

몰도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성직자들의 연대 호소

몰도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성직자들에게 촉구하며, 5백여곳의 예배 장소가 파괴되고 인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쟁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 니나엘 보다는 “모스크바가 여전히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정신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다 대변인은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5백곳이 넘는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이를테면 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침묵하지 말라. 세상에 진실을 말하라. 침략은 영토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성지의 파괴”라고 했다.

이같은 호소는 전국 교회 신도의 90%를 차지하는 몰도바 정교회가 러시아와 루마니아의 권위에 속하는 교회 내 경쟁 분파들 간 충돌성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모

스크바와 연계된 몰도바 대교구에서 많은 교구가 이주해 루마니아와 연계된 규모가 작은 베사리비아 대교구에 속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와 연결된 몰도바 블라디미르 대주교는 공식적으로 첫날부터 침략을 비난하고 9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지원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블라디미르 대주교는 2023년 인터뷰에서 “모든 예배에서 교회를 위해 자비를 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기도하는 특별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도에서 그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주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관련된 교회의 본당에 속한 사제들은 침략을 뒷받침한다는 견해로 되어온 언론 보도가 여러 건 있었다. 교회 측은 사제 그룹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러시아 성지로 ‘순례’를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구 250만 명인 몰도바는 우크라이

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쟁이 시작된 아래로 60개 이상의 교구가 러시아 정교회에서 루마니아로 소속을 옮겼다.

러시아 정교회 내부에서도 전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모스크바 총대주교 키릴은 침공을 지지하고 러시아 정부와 교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후 ‘용서의 날’(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된 것을 기념하는 교회 축제)에 설교를 통해 서방의 동성애자 권리 지지를 공격했다.

리버풀 호프 대학교 신학 수석 강사이자 우크라이나 비잔틴 전례 가톨릭교회 회원인 타라스 코미치 목사는 2022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키릴은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지만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했고, 종대주교의 설교 직후에도 3백여명의 사제들이 평화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이미경 기자

IAEA “북 영변 5MW 원자로 작년 10월 재가동 징후”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작년 가을부터 재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리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영변의 5MW 원자로가 작동이 약 60일의 중단을 거쳐 2024년 중순부터 재개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60일의 가동 중단 기간 원자로로 연료 공급 및 재가동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로시 총장은 “방사화학 실험실에 공급할 증기 시설 가동을 포함해 새로 운 재처리 작업 징후가 포착됐다”라고

했다.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핵물질 생산기지는 영변으로 추정했다.

그로시 총장은 “사진에 보이는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와 인프라가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 시설 및 구조와 일치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공개된 강선 시설을 거론, “강선과 영변의 비공개 농축 시설과 김 위원장의 ‘무기금 핵물질 생산 계획 조과 수행’ 촉구는 모두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시 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확하게 위반한다”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화산금지조약(NPT) 세이프가드 협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향상된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난영 기자

에스토니아, 유럽권에서 최고의 인플레이션율 기록

2월 인플레이션율 5% 도달.. 유로존 최고 비율 다른 유럽 국가들은 2월 2.4%.. 전월 보다 줄어

북유럽 벨트 3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의 인플레이션율이 2월에 5%에 도달해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유럽연합통계청 연감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했다.

3일 발간된 유로스타트 최신호의 사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통계청은 이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전력시장의 가격 인상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拉트비아-에스토니아 벨트 해 연안 3국이 오랜 노력 끝에 올 해 2월 8일 러시아 전력망과의 완전한 분리를 실현했다.

에스토니아 통계청의 긴급 발표 수치

에 따르면 물가인상이 극심한 가운데 가격이 내린 것은 의류와 신발류 밖에 없다고 한다.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월 들어 2.4%로 감소해 1월의

2.5%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4분기의 에스토니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2% 상승해서 106억유로(111억 달러, 16조 2,282억 원)에 이르렀다고 에스토니아 통계청은 밝혔다.

지난 해 4분기에는 10개 분기에 걸쳐 계속되었던 경기 침체가 끝나고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GDP가 상승했다고 통령에게 “로베르트 무이르세프 국내통계국장은 말했다. 하지만 지난 해 에스토니아의 1년 전체의 GDP는 전년 보다 0.3% 줄어든 395억 유로(415달러, 60조 6,730억 원)에 그쳤다. 차미례 기자

트럼프 “TSMC, 미국에 1000억달러 투자 계획”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가 미국에 1000억달러 규모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반도체 공장 확대 등 향후 4년간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윤희 기자

힘센 충남!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 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



DOOSAN

소형 건설 물류 장비의 세계적인 이름 밍캣은 두산의 브랜드입니다

WE ARE DOOSAN

**Bobcat**

트럼프, 젤렌스키 강력 비판… 미국·우크라 갈등 격화

“전쟁 종식 의지 없다” 비난… 젤렌스키는 “미국과 관계 회복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이 것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이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사람(젤렌스키)은 미국이 지원하는 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유럽 지도자들은 젤렌스키와의 회의에서 미국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힘의 과시 측면에서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물 협정 서명도 무산됐다.

◆젤렌스키 “미국과 관계 회복 기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 참석 후,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광물 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도 여전히 준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정상회의 참석 전 우크라이나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날 시점은 아직 멀었다”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냉담한 태도… 젤렌스키 신뢰도 하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다. 그는 “당신에게는 (내밀) 카드가 없다(You don't have the cards)”며,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입장이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해온 지난 30여 년간의 외교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이 되었으나,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간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시도



28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 지지했으나,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나폴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

령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다시 나토 가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협상을 우선시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 회담에서 격렬한 설전… 트럼

프 “고마운 줄 알아라”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대립이 격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푸틴은 지금까지 25번이나 자신의 약속을 어겼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를 논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마운 줄이나 알아라. 당신에게는 협상 카드가 없다”고 면박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는 지난 30년 간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인식을 보이며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불소추 특권 쟁점 부각

대선주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주장… 여야 공방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28일로 확정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다수설을 강조하며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이에 힘을 실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기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불소추 특권에서 말하는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재판수행(공소유지)까지 포함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도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흥 후보 측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과거와 정반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기소된 사건은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하면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거대 야당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조현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 84조 논쟁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박용국 기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년단체, 현재 앞 무제한 기자회견 돌입

국민변호인단, 탄핵 절차
비판하며 청년 필리버스터 진행



위법재판, 출속재판, 이념재판! 국민이 심판한다!

현재 앞 20·30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2030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변호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필리버스터가 현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경업 선포가 선거 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인 배의철 변호사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이 왜 기각돼야 하는지를 현재 재판관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현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

하겠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의 발언 이후 ▲김세비(연세대 대학원 재학생) ▲박강희(건국대 출입생) ▲이한나(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교육국장) 등 청년들의 자유페일언이 이어졌다.

낮 12시부터는 연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연세대 학생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박준영(연세대 전자전기공학부 재학생)은 “윤 대통령의 비상경업 선포는 선관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부정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다.

박용국 기자

자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한국인삼협회

(사)한국차자조회

(사)한국진환경농업협회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품증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율적 수급조절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소비 홍보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품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증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교육 및 정보 제공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걱정은 나누고
위기는 함께하는 자조금~!

(사)한국복숭아
생산자협의회
(사)한국딸은감협회
(사)한국양파연합회
(사)한국마늘연합회
(사)한국포도협회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사)한국참외
생산자협의회
(사)한국난
재배자협회
(사)대한두체협회

(사)한국인삼협회
(사)한국차자조회
(사)한국진환경농업협회
(사)한국백합
생산자중앙연합회
(사)한국기위연합회
(사)한국배연합회
(사)한국파프리카
생산자조회
(사)한국사과연합회
(사)제주감귤연합회



한국 수출 둔화 지속…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로 불확실성 확대

수출 성장세 약화, 경제성장을 하락 전망… 정부, 긴급 지원책 마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을 전망치도 1%대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52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

난해 7월 13.9%에서 8월 10.9%, 9월 7.1%, 10월 4.6%, 11월 1.3%로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12월에는 6.6%로 반등했으나, 올해 들어 1월에는 -10.3%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수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년 이상 이어진 수출 성장세 둔화는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전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준 1.9%에서 1.5%로 0.4% 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이는 1월 발표된 수정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무역 갈등이 한 52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 지

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중간재 조달 다변화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조사 ▲해외 거점 이전 및 유턴 기업 지원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와 환율 변동, 관세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무역 금융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366조 원으로 확대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을 목표로 수출 지원 기관 14곳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구기보 송실태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동남아와 유럽 등 대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기업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최상목, 국정협의회 재가동 요청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과 민생 경제 안정 위한 정치권 협력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4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

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民間이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발 통상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정협의회 개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이준석, 이재명 '엔비디아 국유화' 발언 비판… "위험한 경제관"

인공지능 투자·국가 지분 논쟁…
여야 경제 정책 공방 가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구상을 '위험한 경제관'이라며, 국유화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대왕고래에 끌려 산유국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계약률을 선포하더니, 제1야당 대표는 얼렁 '인공지능 대박론'에 침착해 첨단 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며 "한쪽은 반지성, 다른 한쪽은 무지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으면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라며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기본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 낼 것을 알기에,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은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조차 국내 주식 투자 시 지분을 10% 이상을 확보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데, 국가가 기업 지분 30%를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과 나누다는 발상은 어디에나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성장 중심 기업을 국제 대체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며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구상은 또 다른 베전의 '아무 말 경제학'일 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는 화천 대유나 천화동인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치권은 법조인들이 서로 감옥에 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등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탄하는 데 집중할 뿐, 정작 중요한 경제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의 중심에 경사와 피고인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와 과학기술 담론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본인들의 정치적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스피커들이 이 우격다짐으로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다"며 "이 대표의 무상 시리즈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훼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벤처캐피탈처럼 국가를 운영하자는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성장주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부 지분을 높여 광구 탐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구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비판을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이 의원은 "본인이 잘난 척하다 실수한 것인데, 오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문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PC 정치적 올바름"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이 대표의 발언이 혐오적이고 비하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설사 문맹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서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자금은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중 일부를 국가가 보유하면서 투자로 인한 생산성을 국민과 나누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하나 생긴다면, 70%는 민간이, 30%는 국가가 소유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충전 한번으로 메디든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화학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공식 발표

협상 결렬로 유예 종료… 중국에도 추가 관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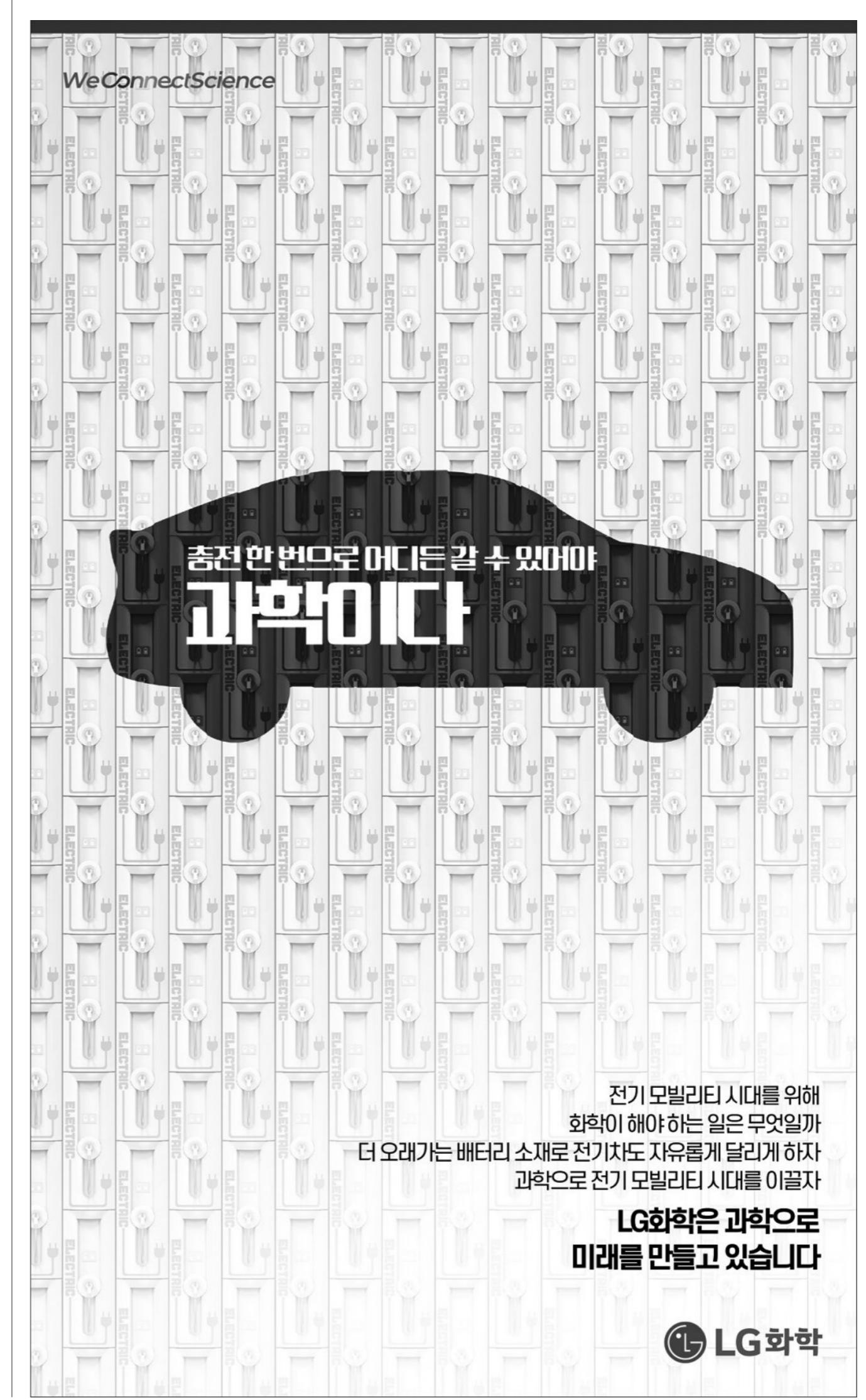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4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당초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협상을 위해 한 달간 연기된 조치였다. 하지만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TSMC의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이제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내에 자동차 공장과 같은 생산 시설을 건설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협상을 통한 관세 유예 가능성에 묻는 질문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위한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관세는 이미 준비되었으며, 내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타격이 예상된다. 흥은해 기자

이번 조치는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멕시코에는



비가 많이 내린 새벽 두시, 교회의 기억...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광야를 선택한 주님교회

40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은 현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떠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ecclesia) 즉, 세상 가운데서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UMC교단 총회에서의 결정, 즉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 허용 및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를 허용한 교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신앙의 입장을 굽히는 대신,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건물 대신 신앙'을 지킨 주님교회(담임 최현규 목사)의 사례는 진지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목상의 질문을 던져주며, 교단과의 신학 및 신앙적 불일치로 고민하는 교회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지난 1월 말, 주님교회 최현규 목사가 TV기독일보 '새롭게'에 출연해 교단을 탈퇴하게 된 과정, 교회 건물을 두고 마땅한 예배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얼마 전까지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섰다. 연합감리교회는 감독의 파송제도, 저희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지정하는 교회로 간다. 2022년 7월부로 남가주 주님의교회로 파송되어 사역했다. 그때 연합감리교회 이슈 중 하나가 동성애 목사 안수를 합법화시키는 이슈가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총회를 통해 대략 95.6%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그 동성애 목사 안수가 허용되면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2024년 5월 말, 교단에서 제일 큰 총회를 통해 그것이 통과되었다. 반대하는 교회에는 제재가 들어갔고, UMC는 저를 5월 말에 다른 미국 교회로 파송하기로 했고, 열흘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교인들과 제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교인들은 헤어질 것이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때문에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답은 한 가지였다. 교회를 하나님께 끌어야 하고 성도를 하나님께 끌어야 한다."



주님교회 담임 최현규 목사 ©TV기독일보



주님교회는 연합감리교(UMC)의 친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며, 교단을 탈퇴한 후, 여러 곳에 주일예배 드릴 장소를 문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주일예배를 3일 앞둔 목요일 SONORA 하이스쿨로부터 건물을 사용해 된다는 연락을 받고 6월 23일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교회 측 제공

교단을 탈퇴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6월 15일 성도들 앞에서 UMC 탈퇴 결단을 선언했다. 탈퇴 선언 후 예배드리기 위해 30군데를 알아보았지만, 한 곳에서도 '예스'라는 답을 얻지 못했다. 6월 13일 예배를 앞두고, 예배 치소를 찾지 못한 주님교회는 33도~35도 되는 더운 날씨에 아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

주일을 3일 앞둔 목요일, 라하브라에 위치한 SONORA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온 성도가 웃었다. 그렇게 온 성도가 나와서 첫 예배를 작년 6월 23일에 드리고 지금까지 주님교회는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다.

최현규 목사의 결단은, 그의 마음 속

깨우셨다. 비를 끓고 교회에 갔는데 이미 성도들이 열심히 물을 푸고 계신 모습이 어린 제게도 감동이 됐다. 목회에 대해, 어렵고 힘든 것만 기억했는데, '아니구나, 저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다."

그는, 이전 보다 환경이 좋지 않지만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모임을 갖기 쉽지 않음에도,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캠퍼브레이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제1기 브레스디아스(Tres Dias)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성경필사에도 150명이 참여하는 등 영적인 훈련을 자속해 나가고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 '내 것'처럼 여겼지만, 이 과정을 겪으며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최 목사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 '주님처치'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교회홈페이지 : www.joonim.org
주일 예배 :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토마스 맹, 주디 한 기자

미국 내 기독교 감소세 멈춰... 퓨리서치, 종교 지형 조사 발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미국 내 기독교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최신 종교 지형 조사(Religious Landscape Study, RLS)에 따르면, 미국에서 기독교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미국 성인 36,9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이번 조사를 "미국 내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 실천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내 기독교인의 비율은 60%에서 64% 사이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독교인의 비율은 62%이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증가세도 멈춘 것으로 분석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수석 작가인 에런 얼스(Aaron Earls)는 "이전까지 진행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미국 기독교인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 기독일보 DB

고 응답했으며, 2014년에는 이 비율이 71%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가 멈춰면서 현재 62%를 기록하고 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이른바 '논즈(nones)'의 증가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얼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논즈의 비율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미국인의 약 30%가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혹은 특정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세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며 "이러한 새로운 종교 환경 속에서 교회가 주변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에서 개신교인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1%에서 감소한 수치다. 기톨릭 신자의 비율은 2007년 24%에서 현재 19%로 줄었다. 하지만 개신교의 감소세는 2019년부터, 기톨릭의 감소세는 2014년부터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얼스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음주의 개신교(Evangelical Protestant) 신자의 비율은 2007년 26%에서 현재 23%로 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역사적으로 흑인 교회에 속하는 개신교 신자는 같은 기간 7%에서 5%로 줄었다"며 "그러나 주류 개신교(mainline Protestant)는 2007년 18%에서 현재 11%로 급감했다. 이는 개신교 전체 감소 분의 대부분이 주류 개신교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퓨리서치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감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다른 지표들을 보면 향후 몇 년 안에 미국 내 종교 지형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덜 종교적이라는 점이 주요 변수"라며 세대 간 종교 신앙의 차이가 향후 기독교 인구의 변화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연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상동교회 방문... 통일 및 탈북민 지원 논의

독립운동 유산 계승하며
통일 의지 강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성조 상동교회 목사를 예방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원쪽)과 이성조 상동교회 목사가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또한, 그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탈북민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법 개정(4월 23일 시행 예정) ▲탈북민 고용 기업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2월 28일 시행 예정)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체권 매입판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노후 국 공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제가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판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앤드류 모로즈 목사(사진)의 기고 글인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을까?'(Will there be peace in Ukraine?)를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모로즈 목사는 The Renewal Initiative의 창립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희망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로, 응호, 구호, 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우크라이나에는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존재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그렇다. 그들의 나라는 부당한 침략을 당했다. 그들의 도시는 폭격을 받고 있으며, 군인과 민간인들은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공습 사이렌과 전쟁의 공포에 시달린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안보도 원하고 있다.

단순히 전쟁을 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보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단계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

백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렇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신다(예대 7:14).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하실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며 가복음 1:15라고 말씀하셨다. 회개란 현재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방향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가해자를 책임지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담론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거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피할 방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는 민주적으로 소련에서 독립하기로 결정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였던 핵무기를 포기하며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부 개입을 거부하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동부 지역에서 분쟁을 조장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묵인했고, 크림반도 합병을 방관했다. 2022년의 전면전은 충격적이었지만, 놀랄 일은 아니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악하려 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여기서든 불의가 존재하면, 이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

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불의를 용인하면 결국 우리 삶 속에서도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과거 북미 지역은 두 대양으로 인해 국제 분쟁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전쟁과 불의가 일어나면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문제가 된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수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에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다.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비단 태아만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공동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특히 민간인의 생명을 무시하는 전쟁이 벌어질 때 더욱 그렇다.

2024년 가을, 나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있었다. 그때 한 아파트 건물이 폭격을 맞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며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었다.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들었다. 나는 순간 9·11 테러를 떠올렸다.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불길에 휩싸인 쌍둥이 빌딩,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인들은 9·11과 같은 공포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

그렇다.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롭게 끝나야 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지난 3년간의 고난을 견디고, 용기와 겸손으로 조국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는 빼앗을 수 없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은 한 손에는 흙손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일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와 함께 의미 있는 행동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리뉴얼 이니셔티브(The Renewal Initiative)'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전쟁의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삶을 재건하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대응은 신앙의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라고 말씀하신다.

최승연 기자

"몸을 무시하는 영적 삶, 성숙한 영성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어"



최창국 교수(사진)가 최근 복음과 도시 흡폐 이지에 '몸과 함께하는 성숙한 영성 추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영만을 이상화하고 몸의 인격은 이자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온전한 삶을 형성해 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며 "따라서 온전한 영적 삶은 체화된 몸의 성숙한 육체성 또는 물질성과 상호 작용 없이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탈체화된 영적 삶의 배경에 대한 이해는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먼저 탈체화된 영적 삶의 추구는

플라톤 이원론의 영향을 통해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플라톤은 영혼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몸의 가치를 거부하는 이데아론 까지 주장했다"고 했다.

또 "둘째, 탈체화된 영적 삶의 이해, 특히 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과학 문명이 발달 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 환경 속에서 몸의 부정적 경험과도 관계되어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취약한 신체를 날마다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따라서 몸에 대한 부정적 시유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 탈체화된 영적 삶의 추구는 물질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한 요인도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이

해는 물질성(materiality)을 물질주의(materialism)와 혼동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영적 삶은 몸의 성숙한 물질성과 분리되어 형성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넷째, 탈체화된 영적 삶의 이해는 성경의 나오는 육, 육신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사르크(sark)의 비의적(esoteric) 표현의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나아가 탈체화된 영적 삶의 이해는 로마서 등에서 몸에 대한 비의적 표현 때문에 발생한 원인도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인격적 특성과 삶을 지시하는 몸과 마음과 영과 같은 용어는 분리될 수 있는 실체나 부분(par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양상(aspect)을 의미한다. 즉, 인간 삶의 형태와 차원의 특성을 묘사하는 용어들"이

라며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인간의 영만 하나님과의 관계된 인격이 아니다. 몸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인격"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 역사에서 몸의 부정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곡하는 영적 실천, 즉 극단적 금욕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일부 사마의 교부들은 몸이 영혼에 방해가 되므로 몸을 죽여야 한다는 믿음에서 몸을 괴롭히는 극단적 금욕을 실천했다"며 "그러나 몸을 괴롭히는 극단적 금욕은 몸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도 병들게 한다. 따라서 몸을 무시하는 영적 삶의 추구는 오히려 영의 성숙한 영성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후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번 속)시에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사순절 맞아 '대화'의 가치 되새길 때

진리 위해 어떤 자세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피터 크럼플러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이번 사순절에는 누군가와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This Lent, why not talk to somebody?)를 지난달 28일(현지시각) 게재했다.

크럼플러 목사는 영국 허즈주 세인트 앤드루스에 있는 잉글랜드 국교회(Church of England) 목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말은 싸다"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오히려 말이 귀해진 듯하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조롱하며 비난을 주고받고, 소셜미디어와 기술의 발전은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를 대체해 버렸다.

우리는 이 세계를 바꿀 수도 있고, 쟁취하거나 인공지능, 온라인 논쟁을 이겨낼 수도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주변 공동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가오는 사순절(3월 5일 재의 수요일 시작)을 맞아,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신앙의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는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를 세우는 곳이다. 교회는 유아 그룹부터 노인 점심 모임까지, 모든 연령층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예수님은 대화의 중요성을 믿으셨다. 그분이 살던 시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고, 함께 삶을 공유했다. 제자들은 그분의 삶을 직접 보며 배웠다. 예수님이 자신이 곧 '진리'라고 선언하시며, 오직 자기 이익과 권력만을 좇는 사람들의 시각을 훈드셨다.

곧 사순절이 시작된다. 이 기간은 회개와 묵상의 계절로,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시기를 맞아 우리의 말과 대화의 중요성을 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진리의 의미 조차 희미해져 가는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할 수 있다.

이 슈퍼마켓 프로젝트 외에도 '대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

최승연 기자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



정성구 박사
전 종신대·대신대 총장

나이가 들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생각이 늘 옳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과거의 배움과 경험과 만남과 성공과 성취와 실수와 실패를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아닌 까닭에 전지(全知)하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겸손한 성품 중의 하나는 지적인 겸손

입니다. 지적인 겸손은 아직도 모르는 것 이 많으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은 모르는 게 없다는 뒷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그것을 지능의 뒷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같이 보이는 데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초등 학생도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선택과 결

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지능의 뒷에 걸린 까닭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적인 겸손이 필요할까요?

첫째, 지적 겸손을 통해 과신(過信, Overconfidence)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신이란 자신의 지식, 능력, 판단이 실제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심리적 오류를 의미합니다. 과신이란 단어 속에는 “자나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과신의 뒷에 걸려들까요? 과거의 성공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이 과신을 낳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기 때문입니다. AI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법과 제도 윤리 심지어 종교와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거의 사람의 판단과 동작과 흡사한 AI로봇이 개발되어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직장, 직업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AI를 연구하는 직업과 AI를 만들고 고치는 산업, AI 기술로 디치고 병든 사람의 육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료공학분야 외에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아갈 수 있는 유托피아가 올 수도 있고, 일하지 못해 먹고 살기 어려운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이 생산 수단을 국가나 공동체가 관리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를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신 것처럼, 종말에 대한 수많은 거짓 정보와 오해와 폭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purity)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켜내야 할 것은 목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AI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단순히 큰 경제적 유익이 되기 때 문이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을 알

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많은 지식을 폐기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정보와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같은 생각과 같은 방법과 같은 전략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지

속적인 성공을 이를 수 없습니다.

둘째, 지적 겸손은 지적 유연성을 낳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필요 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적응력입니다. 유연성은 변화에 잘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지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도구를 환영합니다. 기존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더 나은 생각을 환영합니다.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또한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할 때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경직(硬直)입니다. 경직(硬直)이란 돌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직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셋째, 지적 겸손은 협업의 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승을 무시합니다. 집단 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더불어 일하는 것

을 좋아합니다. 통합과 융합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 의견 속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장 최상의 길을 선택

하게 됩니다.

넷째, 지적 겸손은 평생 학습의 길입니다.

지혜는 평생 학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

보를 분별한 후에, 좋은 정보를 선택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

는 하늘에서 임합니다. 또한 겸손한 배움

과 경험의 축적의 열매입니다. 평생 학습 이 지혜의 길인 까닭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영원히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약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식과 정보에 매달려 있으면 시대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자세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라는 태도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자세입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이기려고 대화하는 것보다 대화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소통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적 겸손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AI: Prologue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믿음의 신선도(Freshness)를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자신은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시에에 깨어 있으라”,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자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때가 갑자기 도래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신 것처럼, 종말에 대한 수많은 거짓 정보와 오해와 폭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purity)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켜내야 할 것은 목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AI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단순히 큰 경제적 유익이 되기 때 문이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을 알

기 때문입니다. AI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법과 제도 윤리 심지어 종교와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거의 사람의 판단과

동작과 흡사한 AI로봇이 개발되어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직장, 직업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AI를 연구하는 직업과 AI를 만들고 고치는 산업, AI 기술로 디치고 병든 사람의 육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료공학분야 외에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고, 일하지 못해 먹고 살기 어려운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이 생산 수단을 국가나 공동체가 관리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를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신 것처럼, 종말에 대한 수많은 거짓 정보와 오해와 폭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purity)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켜내야 할 것은 목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AI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단순히 큰 경제적 유익이 되기 때 문이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을 알

생명을 택하라

김희보 은퇴 목사
예장 통합 용천노회

[말씀과 명상(42)]
신들의 죽음: 메레즈코프스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랑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명기 30:19)

택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이미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 응답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삶을 향해 “기대어” 살아감으로 이미 주어진 생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초청받은 것이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황제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나중에는 그

리스트의 승리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 메레즈코프스키(Dmitry Sergeyevich Merejkovsky, 1865-1941)의 소설 <신(神)들의 죽음>(Smertibogov, 1896)이다.

밀라노 칙령(勅令)으로 기독교를 공인(公認)한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는 율리아누스의 사촌 형이었다. 왕권(王權) 다툼으로 아버지가 콘스탄티누스에게 살해당하고, 율리아누스는 가족과 함께 감금(監禁) 생활을 하였다. 그 때문에 콘스탄티누스와 그가 적극 후원하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실의(失意)에 빠진 율리아누스에게 접근하여 서로 사랑하게 된 아름다운 여성, 그리스 정신을 높이 사는 알시노에 였다. 그녀는 율리아누스에게 “당나귀의 가죽을 뒤집어 쓴 자수가 되어 복수하라” 하고 말하였다. 율리아누스는 그 말에 따라 마음으로는 제우스와 아폴론 등 그리스의 신들에게 흠뻑 빠져들면서, 걸으로는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회를 기다렸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운명(殞命)하고, 그 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된 것은 유키아누스였다. 사자는 당나귀의 가죽을 벗고 공공연히 기독교에 도전(挑戰)하였다. 유키아누스의 머리 위에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가 새겨진 거룩한 것” 대신 아풀로 상(像)이 새겨진 것”이 펼쳐

있었습니다. 유키아누스는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아 네가 이겼다. 지금은

갈릴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라.

그러나 후일(後日)에는 우리들이 이기게

된다. 그 때에는 신들과 동등한 것, 태양

처럼 영원히 미소 짓는 마음이 이 세상

을 반드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과 저주를 반길

리 없다.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

이다. 그러나 정작 참 생명과 참 행복을

향유(享有)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 그

것은 곧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시 27:1), 그리고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시

는 하나님(시 16:2)을 자기 삶의 주인으

로 삼는 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하나님의 법과 가이사의 법(7)

서현제 박사

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요 4:21-24, 마 18:20)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묻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하셨다(요 4:21-24).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만이 참된 예배라고 믿었다. 모세의 율법도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일 년 세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록 명하였다(신 16:16).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왕이 46년에 걸쳐 완공한 웅장한 건물이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다 비웃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 된 자기 육체가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영적 의미로 하셨지만(요 2:19-22)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마 24: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의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롬 12:1).

그러나 각자의 삶이 예배라는 의미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는 구별된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으므로 주요 교단 헌법은 그 교단의

신조에 따라 예배의 방식과 순서를 정한다. 예배는 교회가 누리는 종교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속하므로 국가는 예배의 방식과 내용에 관여해서는 않되며 과거 공권력이 예배에 관여한 사례도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방역당국은 각 단계별로 종교시설에 대해 온라인예배로 전환할 것을 명하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내렸다. 가톨릭과 불교는 물론이고 대부분 기독교 교회들도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앙 앞에서 방역조치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현장예배를 고수하자 이들 교회와 교인들에게 시설폐쇄조치와 벌금을 부과되었고 교회들은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이 소송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은 공권력이 예배 방식까지 정하는 것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침해인가, 백화점 등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전면적 집합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가, 교회 현장예배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가 하는, 세 가지가 다투어졌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조치는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며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 교회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대면예배를 통해 코로나 19가 다른 일반적인 모임보다 더 확산되었다는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다른 필수시설에 비추어 덜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아무리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이더라도 예배는 생명이다.

요 호흡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여 당국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주목한다.

성경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는 말씀이 있다. 오만한 국가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 권력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재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이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2천년 기독교 역사가 보여준다.

아무튼 코로나 19는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특히 교회로 하여금 그 존재 이유인 예배의 문제를 깊이 새기는 시련이자 기회이며, 예배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를 고민하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시작과 끝이 같아야 승리한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누구든지 시작은 요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체중을 줄이겠다. 성경을 몇 독 하겠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겠다.’ 등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지만 많은 경우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경우 우도 미친거지입니다. 각종 비전을 선포하고 대내적으 구호와 혁신을 위한 퍼포먼스로 시작하지만

끌은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웃지만 끝에서 웃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올바른 신앙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신앙은 정상정복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구원의 결승선을 첫 사랑의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계획도 세우고, 이성과 경험으로 예상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돌발 상황이 생겨 들어

지고 문제와 어려움으로 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의 타월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강한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죽으나 사나 주인을 쳐다보는 존재이고, 모든 공급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며 위기나 어려움은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때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 루틴을 만들어 지어야 합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 한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문화나 풍조, 물질의 유혹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악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절기를 지키며 아침저녁 예배드리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God First!의 루틴입니다. 일상 가운데 영적 루틴이 만들어져야 큰일에도 강하게 되고, 끝까지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습관(마가복음 1장 35절)

송재호 목사

힐렐루야한인교회



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적 성숙을 위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한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본문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새벽 이른 시간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셨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습관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거룩한 영성과 신앙의 습관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찰스 두히그(Charles Duhigg)가 쓴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책에는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의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인터뷰가 소개되어 있다. 이 인터뷰에서 릭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우리의 습관과의 싸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신앙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연속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습관들이 신앙에 열정과 참 믿음을 잊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다듬어 나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전화안내 02-739-8119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듣는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복음으로 읽는 구약 선지서 (17)



박덕준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신학

“시온의 통치자 여호와”(이사야 33:17-24)

이사야 33:17-24는 회복될 시온에서 여호와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가 어떠할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나라의 악재 가운데 고통받을 언약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장래에 여호와께서 베푸실 회복을 소망하게 하고 있다.

본문은 여호와를 회복될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처음부터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셨다 (사 61:5; 삼상 8:7 참조). 그러나 여호와 중에 계신 “왕”을 보게 될 것이다(사 2:2-4 참조).

둘째로, 시온은 다시는 이방나라의 위험을 받지 않고 안전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20-21, 23).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해하시며 지키시기에, 시온은 말뚝이 뽑히지 않고 줄이 끊어지지 않는 장막처럼 안정된 처소가 될 것이고, 넓은 해자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사 32:8 참조). 그 뿐 아니라, 난파한 배 같이 연약하던 시온은 여호와의 임재로 강력해져서, 그 장애인들조차 전쟁의 재물을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셋째로, 시온은 여호와의 정의로운 통치가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22).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재판장”이요 “율법을 세우신 이”가 되셔서 더 이상 불의한 통치자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사 1:23, 26; 31:4-15 참조).

넷째로, 시온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24).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징계의 매질을 당했으나(사 1:2-6 참조).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사 1:18 4:3-5; 40:2 참조),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실 것이다(사 50:18 참조).

시온을 회복하시고 그곳에서 통치하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고백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언약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눅 1:67-79).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죄악을 용서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후 5:21; 요일 3:5). 또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영원한 통치자로 삼으셨다(빌 2:9-11; 히 12:2-4; 후 5:19-20). <계속>

월 70만 원 저축하면 5천만 원 목돈… 3월 추천 공공 서비스

행안부, ‘모바일 잡케어’ ‘청년도약계좌’ 등 선정

행정안전부는 개화과 취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모바일 잡케어’, ‘청년도약계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모바일 잡케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직업상담 지원 서비스다. ‘고용24’ PC에서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로도 지원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작업 설계서 만들기, 취업시장 정보, 추천 직업훈련 정보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작업 설계서에서 프로필과 관심 사항을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AI가 직업군을 추천하고, 여기에 추가로 학력·이력 등 을 입력하면 취업시장 정보와 추천 직업 훈련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

부 지원금이 매칭되며, 이에 대한 이자도 추가 적립돼 만기 기준 연간 9.54%가량의 일반 적금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혜택이 크게 늘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평가점수 가점도 주어진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 조건은 나이 외에도 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

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소득이 51.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격적 행동 역시 고위험군(52.55점)이 정상군(51.32점)에 비해 높았다. 고위험군은 사회적 미성숙도 55.73점, 주의집중문제 54.09점 등으로 각각 정상군 53.18점, 51.60점에 비해 점수가 좋지 않았다.

적응 척도에서는 고위험군이 50.13점으로 정상군 55.45점에 비해 낮았고, 사회성은 고위험군 48.72점일 때 정상군 52.49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고위험군이 52.42점, 정상군이 55.90점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한다.

가입 신청은 국민신한·하나 등 취급은 행 11곳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가능하다. 은행별로 금리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확인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성인(2006년생)이 된 19세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등에 드는 관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오는 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콘서트, 뮤지컬, 연극, 전시 등 최대 15만원의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다은 기자

지리산 벚꽃길에서 무료 웨딩촬영… ‘숲 결혼식’도 확대

예식 장소 및 인근 역 사이 무료 셔틀버스 운행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이달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활동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숲속 결혼식으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계층, 노년층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133회 진행됐다.

올해는 모집 대상이 확대되고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결혼사진 활동도 지원된다. 예식 장소와 인근 KTX·버스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예식일은 올해 3월 5일부터 11월 30일 까지로, 국립공원공단에서 장소 대관과 공간연출을 무료로 지원한다. 예식 장소는 총 14곳으로, 올해 하반기

이루리 기자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장면 ©국립공원공단 제공

아동청소년 비만, 모든 걸 망쳐… 불안·우울↑, 자존감·학업수행능력↓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고도 비만 관련 연구

비만 아동청소년은 자존감과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4일 커뮤니티케어 기반 고도비만 중재 시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립보건 기관의 학교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114세의 과체중 이상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군 51.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격적 행동 역시 고위험군(52.55점)이 정상군(51.32점)에 비해 높았다. 고위험군은 사회적 미성숙도 55.73점, 주의집중문제 54.09점 등으로 각각 정상군 53.18점, 51.60점에 비해 점수가 좋지 않았다.

적응 척도에서는 고위험군이 50.13점으로 정상군 55.45점에 비해 낮았고, 사회성은 고위험군 48.72점일 때 정상군 52.49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고위험군이 52.42점, 정상군이 55.90점이다.

서다은 기자

성민원 27주년 기념
성민인 빛사랑 문화축제

2025.
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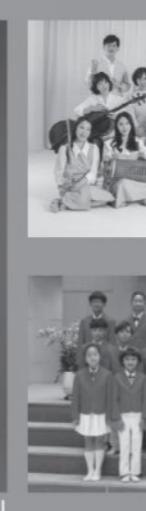


| 주최·주관 |  **성민원** 031-397-2051

| 후원 |  군포제일교회 군포농업협동조합 산본제일병원 윌스기념병원

| 협력 | 기독일보 C channel GOODTV

초대합니다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토지: 2,756m² (833.69평)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빛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4:603)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저서 :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려 가자> 외 다수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버(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회
복대교회 청북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입고 누르기만 하면 후끈~후끈~ 추위걱정 끝! GOSKA 보온 발열조끼

실속있는 보온, 더 얇지만 따뜻해진 소재

겨울철 출퇴근, 등하교, 군대에서... / 실외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분... 낚시, 골프, 등산가실때...

특별할인 파격행사

개인 및 단체주문 환영



파격행사가 ▶ 98,000원(밧데리 포함)

색상 :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사이즈 : 90(S), 95(M), 100(L), 105(XL), 110(XXL)

확실한보온성 / 간편한 버튼 / 세련된 디자인



온도조절 3단계 ▶ 고온(적색) 45°C / 중온(백색) 35°C / 저온(청색) 25°C

※ 배터리 시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철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일하시는 분들께...

구입문의 / 010-5260-9517 신한은행 110-195-067840 예금주 : 태영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세계화된 품질



원활한
혈액순환!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 협 301-0336-3023-11
예금주: 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죄를 죽이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삶

신간 '죽을만큼 거룩하라'

영화에는 의로워지고 성화된 사람들의 신체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부활이 포함된다. 언젠가 그리스도인은 영화된 몸을 뒷집게 된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이 영화된 인간의 몸을 받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리스도인은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상에서 청의와 성화를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 이것을 적절히 표현하자면, 한 개인의 구원은 청의, 성화, 영화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칠스 피니는 이 책에서 의롭게 된 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 매우 중요한 믿음을 다투고 있다.

저자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던 어떤 그리스도인 흡연자는 이 습관을 깨부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반번이 실패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는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담배대에 불을 붙이고 이제 막 입으로 갖다 대려던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몹쓸 탐닉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던가?’ 그래서 잠시 멈칫했지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이런 몹쓸 탐닉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던가?” 이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담배 피우는 습관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되자 그 즉시 담배 피우던 습관의 힘은 깨어지고 말았고, 그때부터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며 “이처럼 가장 깊숙이 뿌리박혀 있던 죄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신체에 악영향을 끼쳤던 습관들, 우리 마음을 압도하는 유혹의 근원으로 작용했던 습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저히 깨어지고 극복되었다면, 그와 같은 은혜로 모든 죄에 대하여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의심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어떤 마음의 감정이나 반감이나 애정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죄를 짓거나 회개하거나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른 어떤 증언도 이보다 직접적인 설득력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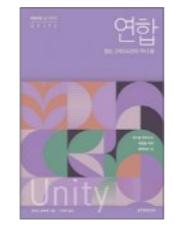
최승연 기자

신간

연합,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연합하여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이들을 섭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역, 문화, 교회, 심지어 연합 자체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분열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의 진리보다 조직적 연합을 우선시하고, 어떤 이들은 같은 교리적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합만을 추구한다. 우리는 연합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 견해를 피해야 하며, 성경적 연합, 즉 복음 중심적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저자 콘래드 음바웨 목사(잠비아 카브와타 침례교회 담임)



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한 성경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고찰을 담고 있다. “한마음으로 서서 핫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빌 1:27)이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연합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있고 참된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후, 복음적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과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다.

저자는 “순전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오직 시간과 공간에 의해 나누어 있을 뿐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거리 문제가 없거나 기술의 발달로 멀더라도 쉽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한마음으로 서서’ 연합해야 한다. 이 연합을 열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리스도

께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확보하셨고 성령님이 이를 적용하신다는 사실은, 오직 순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연합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복음이 이 연합의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결여된 곳에서 우리는 양심상 연합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우리의 교회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회적 장벽을 극복했는지 살펴보라. 어떻게 국가 및 교파적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는지 보라. 복음이 이를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미 사소한 여러 가지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차이에 신경 쓰지 않고 힘을 모아 복음을 위해 함께 분투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 격려를 얻자. 교파를 초월하여 참된 신자들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그들의 자원을 함께 사용해 왔는지를 보고 기뻐하자”고 했다.

최승연 기자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들… 역사적 실존 인물 재조명

영화·드라마 속 ‘외국인 독립운동가’

허구인가, 실제한 인물인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는 독립운동과 항일 투쟁을 함께한 외국인들이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캐릭터는 단순한 국적 효과를 위한 하구적 요소일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실존 인물일까. 연구에 따르면, 영화와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이 존재하며, 이들의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화 ‘박열’에는 일본 왕과 그의 가족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일본인 여성 후미코가 등장한다. 이 캐릭터는 실존 인물인 ‘가네코 후미코’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만세”를 외치며 최후를 맞았다. 또한, 영화 속 루비크라는 인물은 실제로 상하이에서 이영단의 폭탄 제조를 담당했던 형거리 출신 독립운동가 ‘마자르를

모델로 삼았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도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캐릭터가 등장한다. 극 중 서양 기자 ‘매켄지’는 항일 의병들을 취재하며 그들의 투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실존 인물인 영국 출신 ‘프레더릭 A. 맥Kenzie’를 모델로 한 캐릭터로, 그는 ‘데일리메일’ 극동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같은 드라마에서 주인공 유진을 미국으로 데려가 보호해주 는 선교사 ‘요셉 스텐슨’ 역시 실존 인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캐릭터는 고종 황제의 밀서를 해외로 전달하려다 목숨을 잃은 역사적 인물인 호머 B. 헐버트(Homer B. Hulbert)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헐버트는 한글 연구자이자 교육자로도 활동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책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싸우는 외국인입니다』(부기)는 한 국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외국인들의 삶을 다룬다. 이 책에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서훈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 그리고 서훈을 받았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25명의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소개한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마자르, 어니스트 베델, 조지 쇼, 헬버트, 쇼호필(프랭크 스코필드), 루이 마랭 등 서양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된다. 또한, 순원 일가, 장제스, 이숙진, 장보령 등 중국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일본 출신으로 한국 독립운동에 동참한 소다 가이치, 가네코 후미코, 후세 다쓰지, 죠코 요네타로 등의 인물들도 조명된다.

이들은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책은 이들의 업적과 헌신을 재조명하며, 한국 독립운동이 국적을 초월한 연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외국인들의 존재는 한국 독립운동사가 단순히 민족의 투쟁이 아닌, 국제적 연대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재조명되는 이들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 인물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한국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기억하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내리 기자

3월, 작가들의 말말말



사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웃음 짓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적 공간에서 살아온 부부끼리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간혹 부부가 매번 싸워도 좀처럼 서로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개 진짜 문제는 제쳐 놓고 누가 웃으나 그르냐, 누가 더 잘났나 못났나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입장 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부부보다 전혀 싸우지 않는 부부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부부가 싸운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싸움은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때문이다. 희망이 없다면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싸움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 애정과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아직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희망이 있다’는 표현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호근 & 옥에스더 ‘배우자를 배우자’



요셉은 자신이 원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다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를 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구멍이에 빠진 듯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고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악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규현 ‘고난의 신비를 풀다’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자유인이 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 집의 오이케이오스, 곧 권속이 된 거야.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독생자이신 주님의 당신의 권리를 양보해 주셨지.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집의 돌로스, 곧 주인의 소유물로 여긴단다. 나는 디아코노스도 아니고, 오이케테스도 아니고, 파이스도 아니고, 휘페테스도 아니야. 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속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단다.

천종호 ‘천종호 판사는 바울에게 무엇을 물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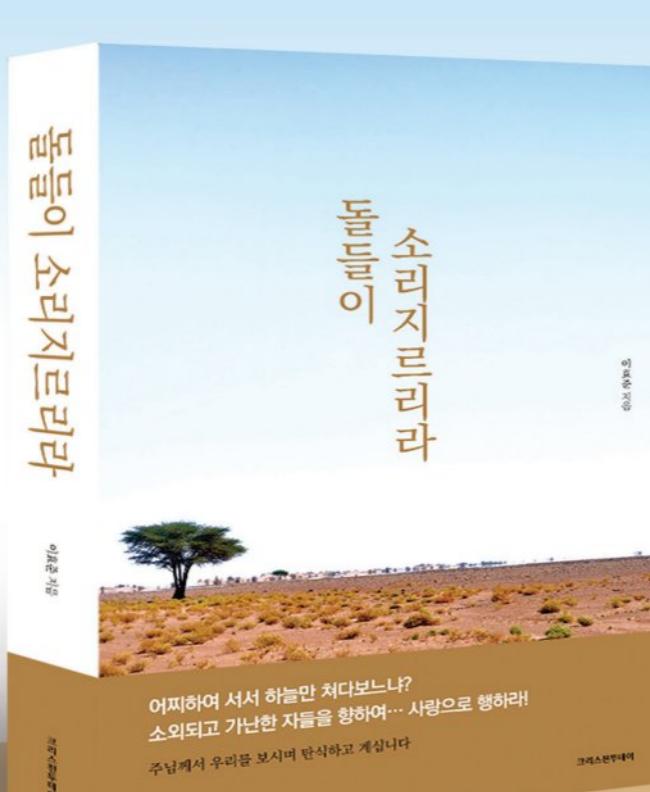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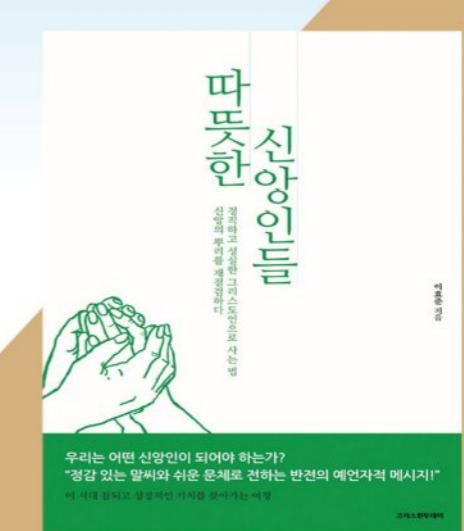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맛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롭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독교 철학 (2)

그는 관념론적인 플라톤주의를 경험론과 엑고자 했다. 그는 인간의 관념이 모두 감각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로크에게서 받아들이며 공간이 하나님의 감각기관(sensorium)이라는 생각을 뉴턴에게서 받아들인다. 순수한 무(無 nothing)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가 없었던 때는 없다. 따라서 존재는 영원하며, 모든 곳에 있다. 그런데 공간이 없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간은 영원히 존재하며, 결국 신적이다.

그런데 로크의 인식론에 따르면, 존재는 의사에 대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에 매순간 매달려야 한다. 따라서 영적인 것만 실제가 된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물질적 사물이 들어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겼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와 뉴턴의 생각을 따랐다. A. A. Maurer, op. cit., 460-461면; T. A. Schafer, "Edwards, Jonathan," in: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8 (Chicago etc.: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70), p. 14.

에드워즈의 이러한 형이상학은 존 로크의 생각을 발전시킨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의 철학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버클리의 저술을 읽고 그의 『존재론』(On Being)을 썼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버클리의 저술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각을 발전시켰던 것 같다. D. Philips, "Edwards and the New England Theology," in: J. Hastings (ed.),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V (New York: T. & T. Clark, 1912), 222면, 225면.

또한 칸트 이전 철학자인 라이프니츠(Leibniz)의 생각과도 매우 비슷해 보인다. 우주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주장은 잘못 이해되는 경우 범신론으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드워즈는 그가 배운 일반 학문을 통해 칼빈주의 신학 전통을 재해석했다. 연구 방법과 표현 방식에서는 당시 철학자들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내용적으로는 칼빈주의를 회복시켰다. 방 법론적으로는 철학 용어를 사용하면서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Ecclesiastes 3:12 NIV
I know that there is nothing better for people than to be happy and to do good while they live.

- do good : 선을 행하다, 도움을 주다
- while : ~하는 동안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라.

카카오톡토리, 영어성경 독해 연습

Proverbs 10:24 NIV
What the wicked dread will overtake them; what the righteous desire will be granted.

- grant: (공식적으로) 주다, 수여하다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나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카카오톡토리, 영어성경 독해 연습

A B C

겨었던 이성을 사용하여 이성주의의 도전을 물리쳤다. 장호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조나단 에드워즈, 서문 강 옮김, 『신앙과 정서』(서울: 자평서원, 2000), 590면.

그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가 다루는 주제를 논리적으로 밟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한 종교적 감정이었다. D. Philips, op. cit., 225면.

에드워즈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감정에 치우친 광신으로 몰았다. 실제로 대각성 운동에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에드워즈는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진정한 영성을 가진 영성과 구분한다면, 영성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진정한 영성과 가짜 영성을 구분하는 근거는 성경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준다. 이 진리는 감성으로 느끼는 것만도, 이성만으로 판단하는 것만도 아니라, 이성을 통해 이해하고 판단하고 감성을 통해 느껴야 하는 진리이다. 이를 통해 에드워즈는 이성주의자의 전유물로 여

를 해결하기 위해 당대 계몽주의 철학을, 특히 존 로크의 경험주의 철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자 한다. 에드워즈가 존 로크의 인식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페리 멀리와 같은 학자는 에드워즈를 로크의 계승자로 여긴다. S. H. Daniel, op. cit., viii면, 20면.

하지만 에드워즈는 로크의 입장을 수정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출발점은 개혁주의 신학이었던 로크의 인식론이 아니었다. 이는 오늘날 철학적 신학 또는 기독교 철학이 신학과 교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다'는 신학적 고백이나, '모든 곳에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다'는 초대 교부의 말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신약 성경의 권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의 영성과 경건을 비아성적인 것으로 몰던 계몽주의 철학에 대해 그 철학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길을 택하기보다, 잘못 사용되는 이성에게 '서예'를 주어 올바른 신학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자리매김 했다는 점에서, 에드워즈는 균형잡힌 신앙이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찬양 집회나 심령대부흥회와 같은 집회가 TV 등을 통해 보여질 때 비기독교인들은 거부감을 갖기 심상이다. 겉으로만 보아서는 시사프로그램에서 문제로 다루는 이단 종파들의 집회 장면과 그리 달라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CCM 콘서트와 같은 공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뻐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인가? 아니면 공연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해내는 감정인가? 이러한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는 설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설교 말씀에 은혜받는 이유가 말씀 자체의 역사에 있는가?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 기법에 있는가? 아니면 듣다에 있는가? 이는 비아성적인 성장을 경험한 한국 교회에 던져지는 질문이다. 아직 이 질문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 조나단 에드워즈, 서문 강 옮김, 앞의 책, 13면.

청교도도서관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송태훈 칼럼 세리에서 사도가 된 마태(Matthew)

비난받는 세리였지만, 그 꿈꾸함으로 위대한 복음서를



1세기 당시 유대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세리에서, 일약 예수 그리스도가 철아 기도하고 임명한 사도로 그 직

분이 180도 바뀐 마태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세리 마태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사람도 매우 드물 것이다.

마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처음 부름받았던 장면(마 9:9, 막 2:14, 뉴 5:27)과 12제자들의 통합적인 명령(마 10:3, 막 3:18, 뉴 6:15, 행 1:13)뿐이다. 마태, 마가 및 누가복음은 그를 알파오의 아들 레위(헬라어 의미 '연합하다')라고도 표기한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가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신하면서 레위 또는 마태라는 별칭을 스승으로부터 다시 얻었을 것이다. 선임 제자 시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별칭 베드로(반석)를 얻게 된 것처럼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을 당시, 세리 마태는 헤롯 안티파의 통치구역인 가버나움에서 매우 가까운 한 세관의 세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눅 5:27). 그 곳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의 징세원(徵稅員)으로 성실히 종사했다. 로마 제국이 직접 관할한 징세 청구인이 라기보다는 유대의 조그만 지방관리 또는 행정을 관리하는 대리자로 세금을 징수했다. 마태가 당대의 대부호(大富豪)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지만 상당히 부유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로 현신을 결심한 이후, 자신의 집에 수많은 사

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그것을 짐작하게 만든다(눅 5:29).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는 "나를 죽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모두 버리고 스승의 뒤를 쫓았다(마 9:10, 막 2:14, 뉴 5:27, 28).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감자 심적 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설교할 때에 조용히 방문해서 복음을 강화를 받고 있다가, 그 분이 제자로 부르자 곧 바로 따랐을 수도 있다. 마태는 제자로서 소명을 받은 시기(연월)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 설교가 있은 이후로 추정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하기 시작한 이후 얼마 안돼서 마태가 초기의 제자로 현신했다.

12명의 사도 명단에 마태의 이름은 항상 두번째 그룹의 4인조 중에 포함돼 있다. 전체 순서로 보면 일곱번째에 그 이름이 명기되어 있으며,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마태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에만

여덟 번째에 이름을 올린다. 마태복음은 사회적으로 달갑지 않은 세리라는 부끄러운 그의 직명을 일부러 부각시킨다. 1세기 당시 세리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견지에서 국민의 배척과 더불어 멀시 천대를 받았다(마 21:31, 막 2:16). 마태는 매우 진실하고 겸손한 사도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태는 원래부터 말이 별로 없는 과목 한 사람으로서 말 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후 그가 입을 열어서 발언했다는 기사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늘 조롱받았던 자신이 당대 최고의 승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려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주장을 공동체에 섞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자신의 현신 기념으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베푸는 잔치에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태가 베푸는 초청잔치 석상에서

바리새인들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그리스도를 비난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0-13, 막 2:15-17, 뉴 5:29-32)"고 청중들을 가르치며,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세리 마태는 성령 강림을 대망하는 12명의 사도들 틈에 끼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행 1:13).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멤버로 현신하며 최선을 다했다. 아마도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팔아 어려운 초대교회에 현금화므로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초대교회 설립 이후, 세리 마태에 대한 소식은 신약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 그가 순회하며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다. 서방교회는 마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말하며, 동방교회 측은 복음사역을 감당하다

노년에 평화롭게 영면(永眠)했다고 전한다.

젊은 날 마태는 비겁한 세리(또는 낯은 직위의 지방관)로 이웃과 타인들을 괴롭히며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리 마태는 자신의 재산과 지식과 인격을 모두 교회에 드려서 복음 사역을 실천하는 행동자적인 교회 지도자로 변모했다.

자신의 것을 전혀 현신하지 않고 일으로만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매우 쉽다. 말 보다는 자신의 것을 공동체에 드리며 손해를 감수할 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공동체에 드리고 최선을 다해 현신하는 사람은 과거에 저질렀던 큰 잘못도 해결 받게 된다. 은퇴 시점에 이르러 돈과 사적인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추태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세리 마태는 할 말이 매우 많을 것이다.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관계

권혁승 칼럼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91)'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훈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장조의 미지막 과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간 창조이기보다 한 가정의 창조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창 1:27). 그런 점에서 인간 역사에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인간의 창조를 제시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창 1:27)"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이다.

은 "이는 내 빼 중의 빼요 살 중의 살이리"(2:23)고 했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루어주는 사랑에 대한 최고 최대의 표현이다. 가정은 사랑의 끈으로 묶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지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짜이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다(창 2:24). 그것은 예수께서도 강조하신 점이다(마 19:6; 막 10:9).

창세기 2장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이룬 아내와 남편을 '돕는 배필'(2:18)이라고 규정한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와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는 뜻의 '케네그도'가 합친 합성어이다. 전자는 '돕는으로, 후자는 '배필'로 번역하였다.

부부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있는 관계이다. '케네그도'가 그런 점을 잘 드러내 준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에 비하여 '도움'을 의미하는 '에제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적 분단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 동등성 위에서 있지만, 가정의 효율적인 유지와 조화를 위하여 서로 다른 기능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인격적 동등성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에 대한 강조라면, 상호보완성은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 2:3)라고 한 것이, 곧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지적한 것이다.

'돕는 배필'은 기본 바탕이고, '도움'은 그 바탕 위에 드러난 실제라고 할 수 있다. '돕는 배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에서 '케네그도'는 선행 명사인 '에제르'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이는 '에제르'가 이 단어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의 '도움'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면,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 동등성이 바탕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사도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 5:22)고 하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엡 5:28)라고 한 것도 그런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서로의 '도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상하로 구분되는 계급적 관계에서의 복종이 아니다. 그것은 남편의 아내 사랑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온혜 한 장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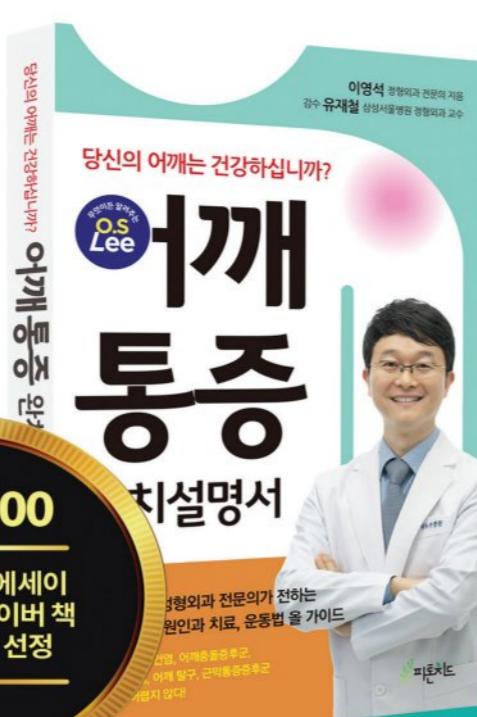
but let him who boasts boast about this: that he understands and knows me, that I am the LORD, who exercises kindness, justice and righteousness on earth, for in these I delight," declares the LORD.
Jeremiah 9:24

基督日報

기독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회오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4)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 라고 했지요 유령이 뭐가 유령입니까? 몸은 죽고 그 영혼만 살아 있으니까 유령이라 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혼백이라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리고 하는데 그것을 구별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 있으니까 유령이라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 보니까 영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유령이지요 내 자신들이 유령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마22:23)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대뜸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날의 받을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욕만 하지 말고 부활의 날에 받게 하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

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죽어 있는 유령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냐 하고 주니까 어머니가 내가 이제야 그러면 보라 네 아들

이 살았다 보라 할 때에 그 여인도 자기가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생명으로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습니까?

자기 아들 살려 주는 것만 보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났습니까? 살아났단 말이지요 너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아전 보라 말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났지 않았느냐 자기가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나 가지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심 받은 그 아들을 보라 말입니다.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로 하며 말씀하셨지요 부활로 받았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리심 받은 것을 말씀했는데 왜 부활이라

부활로 받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또 보게 하셨나요 더 좋은 부활을 보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라

하지요 그런데 여자들은 부활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행11:43)

그리면 부활한 몸은 안 죽지요 이 여자들은 뭘 보았느냐 자기 오라비가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다가 열매 맺는 생명

으로 살리심 받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오라비만 살리심 받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자신도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지요 그러면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난 그 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지요 왜 안 죽느냐 그 열매가 영원한 것이니까 죽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부활로 받았다는 것은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면 우리가 죽었다가 이 다음에 부활할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열매 없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몸으로 그 생명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몸으로 부활로 받은 것입니다(요5:25)

부활로 받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또 보게 하셨나요 더 좋은 부활을 보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라

고 한 것 보니까 그 보다는 못한 부활도 있다는 말이지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좋은 부활은 무엇이고 더 좋은 부활은 뭡니까?(행11:35)

좋은 부활은 심판 재림 때에 부활하는 부활이고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보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도 보게 하시는 것인지 아직도 그 생명을 보지 못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은 구경도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지만은 열매 없는 죽음에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가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지요 그것도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그것이 제일 진실한 줄 알았었

는데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심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실하신 것을 바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실한 것을 바로 볼 때에는 이제부터는 가루 그릇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주시더라도 그 가루 떡은 무슨 가루 떡으로 먹을까요 이젠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었느니라 이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라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교역자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리심 받은 그들이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한 생명을 살렸고 이제야 내가 무엇으로 주시든지 마음놓고 줄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좋은 것으로 주셔도 배부르게 하셔도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신 몸으로 살려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음식으로 받아 먹을 것이고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고통을 주시더라도 환난을 주시더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그 생명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네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섰느냐 엘리야와 같이 내가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복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면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떡을 먹을 때에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하고 있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교역자 입장에서는 내가 엘리야의 자리에서 되고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내 생명을 살려 무엇으로 주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 하여 나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골산 봉목사 제공

온예의샘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다 (2)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종말론적 식사입니다(Anticipation).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리마문서)는 제 22 항에서 “성만찬은 창조물의 궁극적인 간신으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앞당김은 막연히 앉아서 기다려 얻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참석할 때 버림받은 이들과 연대하는 소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소명을 받아”(24항)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동참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25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누

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착하게 진실하게 친양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세사민속(歲時民俗) 가운데 대보름 민속으로 원을 푸는 떡(解怨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이해(利害)에 얹혀간 오해에 얹혀간 간에 누군가와의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불편한 관계를 갖는다면 피차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보름 명절에 그 불편한 관계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 해원떡을 만들어 산사(山寺)의 스님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서 지난해의 불편했던 관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떡을 통해서 원수된 관계를 풀고 서로 화목 하는 길을(解怨相生) 모색했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떡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라고 하셨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또 자연과 불편했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친히 해원떡이 되셨고, 이 떡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로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이 기독교 예배를 감사제, 기념제, 기원제, 화목제, 종말론적인 축제로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만찬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의미를 예배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피상적이고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만찬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과하지 아니하며, 성만찬 예배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성만찬의 시행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한 차원 높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한국도로공사 창립 55주년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한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생활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500만대가 이용하는 행복한 고속도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ex 한국도로공사

Kyrie eleison



이선종 지휘자

(눅 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 되 하나님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0월 마지막 주일은 개신교의 생일이 될 수 있는 종교 개혁주일이다. 이 종교 개혁주일에 오히려 구교의 현주소와 그들이 부르는 미사 기사 하나님을 목격한다. 필자가 사는 오늘날 말씀을 중시하는 미국의 개신교는 80대 노인들 10여 명이 박물관(?) 같은 교회를 키고 있다. 하지만 예전을 중시하는 가톨릭 성당은 몇백 명씩 가득 찬다.

해마다 무교절(Moundy Thursday)과 대강절에 천양 예전을 관찰하려 이웃 구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개신교가 구교 같고 구교가 개신교 같다. 두 종교 다 늘지는 않지만 줄어가는 성도의 속도는 다르다. 구교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고 영감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분명하다. 무엇이 이들의 급격한 퇴락을 막고 있는 걸까? 나는 이것이 예전을 중시해서 라거나 말씀을 중시하는 것 때문이라는 견조한 이론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다. 개신교에도 교단에 따라 예전을 더 또는 덜 중시하는 교단들이 있다. 하지만 성도들이 줄어드는 속도는 대부분 대동

신교는 설교가 개인의 능력으로 데려가고 아직 구교는 말씀의 각 단어가 엄격하게 예전이라는 형식에서 선포된다. 한 정성으로 마음을 발화시키는가 하는 점은 다르다. 오늘은 관점을 달리해서 신교의 단점을 먼저 자세히 보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개신교는 구교

보다 시끄럽고 음악 수준도 떨어지고 말씀이 점점 설교자 수준으로 내려앉아 있다. 청중은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의 개인기변사 솜씨로 손님처럼 남의 얘기를 듣고 있다. 예배라기보다는 모든 예전을 설교자 중심으로 꾸며놓고 유일한 마이크 권력을 가진 설교자의 말잔치로 가득 차 있다. 말이 넘치는데 말씀이 회중과 하나님 사이를 여전히 격리한다. 설교설(말잔치)가 예배라는 등식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개신교의 종교 개혁은 설교자의 지식과 말씀 전달력을 중시한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도의 마음과 직통하여 소통하자 한 것이다. 지금처럼 중간에 행승의 말재주로 개입한 만남류의 애깃거리를 듣자 한 게 아니다. 불교에는 불법을 맡은 자는 행승보다 선승이 하게 한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가까운 자가 말하게 한다. 하지만 오늘 날 기독교는 선승은 없고 행승이 선승 흉내를 낸다. 때문에 행승의 무지와 교만과 허세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아직 구교는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음악으로 데려가고 진정성 있는 예전에서 꽂피는 전통을 고수한다. 개

면서 주의 영이 일어나 큰 영감의 선포적 파장에 의한 누적된 경험이 토착되었다.

기원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가 원형이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세리의 기죽은 기도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고,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자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마음이 이런 기도에 움직인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낮춤이기도 자의 무릎 수준이라고 본 것이다. 예배는 진정 자야가 무너져 내리는 자기 채찍을 중심에 둔다.

‘키리에(주님, 부풀다)와 ‘에레이존(자비)’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주체가 움직인다. 이 두 주체 사이에는 용기와 파멸이라는 이질적인 의미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키리에’는 부풀어 주변을 채우는 곳이라면 ‘에레이존’은 자기를 죽여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한다.

주께서는 흥하시고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 도착한 두 마음은 역설적으로 소통의 삼투암이 같아진다.

두 단어는 이 연결된 통로로 옮겨놓고 예배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피조물의 생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진실한 태도다. 주인 앞에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주인의 주인 됨을 가장 높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주인이 아닌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체성(주인의 종)으로 데려온다는 것이

다. 주인은 인간의 존재기치의 위치를 그 모든 영예와는 정반대에 있는 가장 낮은 지점에 자발적으로 낮추게 함으로 종이 지난 가장 진실의 자리 바로 그 위치야 말로 능력 발화 지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그를 예수는 자신의 나라 중심으로 가져가신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설이요 그 단면이다.

하지만 오늘날 말씀을 중시한다 하는 예배하는 교회는 어떠한가? 설교자의 기

호와 교회의 재정 능력에 따라 오케스트라와 천양팀과 조명과 동영상 같은 것으로 쇼를 한다.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어도 대형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따라서 전도 선교 모두 성장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전문 음악가들의 연출에 의해 천양대가 몇백 명을 넘어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라. 악보도 보지 않고 노래하는 암도하는 거대한 사운드와 음향 전문 엔지니어의 공동 환각에 빠져 놀아나고 있다. 나는 이 쇼에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그 사이에서 자기의 입맛에 덧칠을 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또한 본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과 말씀은 사라지고 없다.

◆이선종 지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VKCC 지휘자 / 성서 번역가

다시 처음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냄새 나는 자신의 모습 앞에 자자러지는 자기 환멸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흥분만 하고 있으면 백화점 환자가 된다. 집에서 굽고 있는 자녀와 아내를 두고 자신은 백화점에서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흠티스와 무엇이 다른가?

구교나 신교나 예전을 지향하는 교회 음악가는 백화점이 아니라 언제나 이 자기 환멸의 자리에 자신의 영혼을 데려갈 때 그 음악이 초라하고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천양대원이 알고 회중이 안다. 하나님께 기가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노래자의 가치는 오직 그 낮은 지점을 나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어야겠다고 다짐하여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색채를 사용할 때 예배는 가장 신적 행위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아름다움과 깊음과 힘이 그곳에 있다. 언제나 교회 음악가는 그 자리에 내려앉아서 주님의 품에서 나는 영혼의 부풀림을 즐기며 오늘 매 순간을 예배로 살 때 주께서 주변의 예배자가 함께 산다 하셨다.

값을 치름

마태복음 13:31-33, 44-52

이 글은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이 고통적으로 느끼는 중요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 감춰진 보물과 귀중한 진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성가대에 분명히 적용되는 하늘 왕국의 삶에 대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큰 가치에의 헌신에 대한 즉각적인 통찰을 준다. 보화가 감춰진 밭에 지불된 값은 아름다운 진주에 지불된 값과 비슷하다. 두 경우 모두 발견자는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교회에서 성가대가 되기 위해 그러한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지불해야 할 헌신의 대가가 때때로 상당히 험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경험에 비주어 볼 때 사람들을 성가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 중 하나로, 인지된 또는 실제 노래 능력 부족 다음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리는 성가연습시간이나 예배에 겪치는 가족 일정 때문에 갈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성가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요구사항 또는 자녀의 일정도 한몫한다. 아무리 헌신적인 대원이라 해도, 피처 못하게 성가대 연습이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각자는 우리의 결심을 저버리게 하는 유혹에

[기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그에 비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헌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Genevieve and Hermon DeHoog

크리스챤 교육과 교회음악 등 교회의 여러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Genevieve는 지역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들은 Georgia 주의 Sugar Valley에서 종교수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브루클린 태버내클 콰이어, 새 앨범 'I Will Not Be Moved' 발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브루클린 태버내클 교회(담임 짐 심벌라 목사)에 소속된 찬양 팀인 브루클린 태버내클 콰이어(Brooklyn Tabernacle Choir)가 새로운 앨범 'I Will Not Be Moved'를 발매하며 은혜로운 찬양과 경배의 세계로 청중을 초대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P는 이번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자 앨범의 타이틀곡인 'I Will Not Be Moved'부터 마지막 곡 'No Other Name'까지 영적 감동이 가득한 찬양들로 차운져 있다고 밝혔다.

CP는 특정 곤간 듣보이는 일부 앨범과 달리 타이틀 곡인 'I Will Not Be Moved'는 처음부터 끝까지 빙틈없는 구성으로 준비된 찬양의 진지와 같다고 밝혔다. 특히 그레이션 수상 경력을 지닌 브루클린 태버내클 콰이어의 32번째 앨범에는 오랜 기간 음악을 이끌어온 지휘자 캐롤 심벌라(브루클린 태버내클 교회 짐 심벌라 목사의 아내)사모의 영적 통찰력이 깃들어 있다.

CP는 앨범 발매를 기념해 열린 프리미어 콘서트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밤 뉴욕 브루클린 태버내클 교회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콘서트에서 청중은 콰이어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한다. 특히 두 번째 곡 'Spirit Fall Down'이 연주될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퍼지는 순간이 연출됐다.

CP는 이날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과 초청객들



브루클린 태버내클 콰이어의 멤버들이 지난 28일 열린 프리미어 콘서트에서 열창하고 있다. ©Brooklyn Tabernacle

도 같은 영적 분위기를 체험하며 예배 중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경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찬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짐 심벌라 목사는 즉흥적으로 보이는 제단 조정을 열었고, 많은 이들이 머뭇거림 없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심벌라 목사는 "간단한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원한다면 명심하시길 바란다. 하나님께는 개신교 가톨릭, 오순절, 은사주의, 복음주의, 루터교 같은 구분이 없다. 그런 단어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녀들이 있을 뿐이고, 아직 자녀가 아닌 이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CP는 이후에도 브루클린 태버내클 콰이어가 Forever We Will Sing, I Thank You Jesus(배비 메이슨 피처링), His Mercy Is More 등 앨범 수록곡을 차례로 선보이며 은혜로운 밤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CP는 브루클린 태버내클 콰이어의 이번 앨범이 다양한 스타일의 찬양을 조화롭게 담아냈다고 밝혔다. You Keep on Blessing Me는 신나는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Fill My Cup과 How Jesus Loves(타란타 그린 피처링)도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마지막 곡 No Other Name은 반복해서 듣고 싶어질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승연 기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지지 다큐 '힘내라 대한민국' 절찬 상영 중

이념 갈등과 국가적 위기 조명…
개봉 나흘 만에 2만 관객 돌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극장에서 개봉하며 주목받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힘내라 대한민국'은 개봉 나흘째인 2일에는 기준 누적 관객 수 2만 2223명을 기록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남북한 이념 대립의 역사적 배경을 조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와 연관 지어 분석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이 초래한 민족적 비극을 되짚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흐름을 다층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계엄령을 주요 소재로 삼아 국가 안보와 정치적 상황을 조명한다. 영화 제작사 측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정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영화 관계자는 "포스터에 등장하는 광화문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국민들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 장면을 통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1분 36초 분량의 예고편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전광훈 목사, 배우 최준용, 강사 전한길 등의 모습이 포함됐다. 영화는 이러한 인물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결정을 조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정차사회적 상황을 분석한다.

이내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하나님의 시선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운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새벽예배 (한성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 의 시선	00 장충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3회) 4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바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하늘비전 오영택) 30 생명의 말씀 (부산초량 김대훈)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63회)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7회)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님길 35 생명의 말씀-박서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청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삶 헌종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휴먼네컷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님길 35 생명의 말씀 (포항장성 박서진) 50 생명의 말씀 (청원상남 이창교)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8:00 20 신앙에세이 30 [생방송] 오늘의 정원	20 다큐 더 로드 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창종현 총장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경각신 목사(예수회남한교회)	20 신앙에세이 30 [생방송] 오늘의 정원(45회)	00 성지가 좋다(47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 교회 30 비전메시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20 [드라마] 더 초즈	3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점심 5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우 목사	0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	20 [드라마] 더 초즈(7회)	00 THE 궁금(1회) -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어야 하나요?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이인(465회)
	10:00 40 사인사색	20 힐링송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인이 함께 드리는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00 2024 다니엘기도회 (김호진 사모) 40 사인사색	00 선교는 지금(19회) -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11:00 1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30 말씀의 삶 헌종교회 윤호균 목사	1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50 이병율 박사의 암을 이기는 건강 바이블	1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필리핀 / 장현수 목사, 에스페란사 목사)	00 소문난 성경교실(436회) - 옥택현 교수: 첫 번째 10강 원들을 평가하다 (여로보암 2세 VS 애모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1264회) 50 우리함께 찬양해(52회) - 행복교회 2부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유원 목사(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기다	10 바이블 프로젝트(신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 (하늘중앙 유영완)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유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50 말씀의 청 (마리나-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백세특강	00 말씀의 삶 헌종교회 성경용 목사 30 말씀의 삶 헌종교회 오원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생명의 말씀 (대구반야월 이승희) 30 백세특강 (김의신 박사 4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142회) 30 말씀의 청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 특별간증 2024 다니엘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운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0 [생방송] Calling GOD(2216회) - 김대성 목사 50 내가 매일 기쁘게(349회) - 이재감 교수	00 백석의 삶타(15회)
오후	15:00 4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신약)	4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필리핀 / 장현수 목사, 에스페란사 목사)	00 2025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16:00 30 생명의 말씀-이상문 목사(두란노교회)	00 우리들의 지식살풀 30 말씀의 삶 헌종교회 이규현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50 [말씀] 안영복 목사(상당교회)	30 생명의 말씀 (두란노 이상문)	00 내 삶의 행복(145회)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
	17:00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00 말씀의 삶 순복음축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삶 순복음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00 사랑의 말씀 (오정현)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 3분 미라클	0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 교회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선우웅 목사(이룸교회) 30 신앙에세이 40 부흥어개인	00 행복플러스 25 아빠스의 기도 50 더 메시지	10 로잔대회 10대 이슈 한국교회 선교 전망 좌담회 50 2023 한소랑교회 감사특집	00 생명의 말씀 (이룸 선우웅) 30 말씀노트 40 누onga 어개인	30 말씀의 청 (선교증양교회 과태권 목사)
	19:00 30 광림의 시간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50 2023 한소랑교회 감사특집	30 광림의 시간 (김정석)	00 말씀의 청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힐링스토리 10 말씀의 삶 헌종교회 차영아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이단사이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월드뉴스 50 저스트 텐 미닛 (워리브)	30 생명의 말씀 (세한 주진)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CTS 뉴스	50 GOODTV 뉴스	00 장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내가 매일 기쁘게(349회) - 장경현 목사 기죽 50 CTS 뉴스	10 채널 매거진 굿데이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111회)
	22:00 20 백설기	10 오 자유여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휴먼네컷	2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37회)	00 예루살렘 데이트리인(465회) 20 소문난 성경교실(433회) - 옥택현 교수: 첫 번째 7강 원들을 평가하다 (아사 왕과 산당)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21회)
	23:00 20 바이블프로젝트 30 사인사색	10 GOODTV 특별간증 2024 다니엘 기도회	00 J.D. 그리어의 깨어진 사람들과 위대한 믿음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바이블 프로젝트(87회) 30 사인사색	00 이석 목사의 잊어버린 복음을 찾아서(199회) 50 리비아즈 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매일 주와 함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alling GOD(2216회) - 김대성 목사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저녁	1:00 00 오늘의 정원(4회) 5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	10 명사들의 명강 40 GOODTV 시내마 마가복음 2부	00 [말씀] 이영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오늘의 정원(4회) 5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	00 맛있는 심방(9회)
	2:00 10 2024 다니엘기도회	1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	10 2024 다니엘기도회 (김유비 목사)	00 우리함께 찬양해(52회) - 행복교회 2부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13회)
	3:00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50 이영훈 목사의 힐링스토리	00 오 자유여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Book of James : The Gospel from the Outside in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0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필리핀 / 장현수 목사, 에스페란사 목사) 50 이영훈 목사의 힐링스토리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찬양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찬양	00 말씀 관통 - 이용 목사의 성경 맥잡기(415회) - 고린도전서 1장 맥잡기 8 40 힐링토크 회복(701회)

경북의 힘![!]
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출산 걱정은 덜고, 가정의 행복은 더하는

경북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안심하고
내 가게를 맡기고,

내 아이와 가족은
보듬으세요!

지원대상 25년도 출산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경북에 속함
- ② 출산일 기준 1년 전 사업장 운영 및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일 것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최대 12백만원

* 실지급한 인건비 내 최대 월2백만원 × 6개월간

신청방법 경상북도 「모이소」 앱 소상공인관

신청기간 2025. 1. 20.(월)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절차

- 지원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대체인력 고용
- 지원금 청구

문의사항 1800-8730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

